



# 雲門

불기 2554년  
봄호  
통권 제112호

雲門僧伽大學



불기 2554년 봄호 통권 제112호

# 雲門

##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죽림헌	3
교수논단	4
차례법문	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10
학인논단	12
특별기고	14
특별탐방	18
이 한 권의 책	22
선사이야기	24
想	26
풍경소리	28
끝없는 여정	30
이와 같이 들었다	32
답소	36
방부소감 하나	38
둘	40
수행의 두레박 하나	41
둘	42
셋	44
운문논평	46
운문소식	48
등불	50
	51
부설거사 임종계 편집부	
자비의 집에 인욕의 옷을 입고 살다 명심 스님	
초기 불교의 이해 I 호진 스님	
불교 음악 범파의 세계 부건 스님	
X-레이 검색대를 지나며 원묘 스님	
임終의례 문화와 佛敎徒의 역할 II 자경 스님	
불교학원(佛教學院) 김지상	
존재의 모습은 다르나 본래는 하나 현오 스님	
우리는 지금 지오 스님	
청산이 좋다고 말하지 마시오 명현 스님	
큰방으로 찾아온 봄 서주 스님	
법륜(法輪)과 공양(供養) 和離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현 스님	
만 가지 선행이 모두 중도로 돌아간다 편집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염주 청전 스님	
첫 걸음 덕념 스님	
매 순간이 공부 순간 보각 스님	
처음 마음으로 '下心' 하며 능오 스님	
가슴 깊이 당신을 불러봅니다 승안 스님	
기도가 준 선물 혜민 스님	
풍요 속의 빈곤 편집부	
인도 바라나시 허만욱	



눈으로 보는바 없으니  
불별이 사라지고  
귀로 듣는소리 없으니  
시비가 균중어졌네  
불별 시비를  
모두 놓아 버리고  
다만 마음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 하네  
부설거사 임종계  
효령 이명숙

## 자비의 집에 인욕의 옷을 입고 살다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인욕의 옷을 입고 산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옷은 인욕의 옷이기도 하지만 자비의 옷, 해탈의 옷이기도 합니다. 인욕하면서 자비롭게 사는 법을 익히고, 꼭 해탈의 문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실인의(慈室忍衣)’ 자비의 집, 인욕의 옷이란 뜻으로 『법화경』『법사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흔히 불법문중을 자비문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법이 자비롭다는 뜻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팔만 사천의 좋은 악방문을 베풀어 중생의 온갖 마음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각각의 한량없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자비하신 의왕(醫王)이라고도 합니다.

慈悲는 ‘興樂’ 즉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悲는 ‘拔苦’라고 하여 괴로움을 빼어서 견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가없이 여겨 견뎌주려는 마음과 아울러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즐거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출가자는 세속의 집을 떠나와 불법문중에 들어왔습니다. 즉 부처님의 집, 자비의 보배궁전에 들어온 것이지요.

인욕의 옷을 입고 산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옷은 인욕의 옷이기도 하지만 자비의 옷, 해탈의 옷이기도 합니다. 인욕하면서 자비롭게 사는 법을 익히고, 꼭 해탈의 문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출가수행자는 마땅히 인욕으로써 힘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경전에서 밝혔습니다.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에 보면 경전을 인용하여 성인들의 여섯 가지의 힘을 설하였습니다. 「증일아합경」에 이르기를

“어린 아이들은 우는 것으로 힘을 삼는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요간하게 마땅히 먼저 우는 것이다. 여인들은 성냄으로써 힘을 삼는다. 일단 성을 내고 난 연후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사문과 브라만들은 인욕으로써 힘을 삼는다. 항상 마음을 사람들 밑에다 둔 연후에 자신의 뜻을 편다. 국왕은 교만으로써 힘을 삼는다. 그들은 세력을 내세워 자신의 기세를 편다. 이러한들은 오롯한 정진으로 힘을 삼는다. 그리고는 자신이 필요한 말을 한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로써 힘을 삼는다. 그것은 대비로 널리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대비는 무연대비이면서도 동체대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힘을 삼아 살고 있습니까?

# 초기 불교의 이해 I

호진스님 / 기림사

\*본 고(稿)는 운문승기대학에서 특강을 했던 자료입니다.

## 목 차

1. 초기 불교
2. 봉다의 생애
3. 경전의 성립
4. 봉다가 발견한 진리 : 연기법
5. 사성제
6. 오온 - 무아
7. 윤회
8. 업과 파보

## 1. 초기 불교

초기 불교란 봉다가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 이후부터 불멸 후 100년경에 있었던 최초의 교단 분열 이전 까지의 불교를 말한다. 다른 명칭으로 쓰는 원시 불교, 근본 불교, 또는 고대 불교라고도 한다. 이 기간의 불교는 봉다가 직접 가르친 불교이고 또한 봉다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한 불교이다. 아직 교단이 분열되기 전이었으므로 봉다의 가르침은 다른 주장 없이 대체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봉다의 탄생연대를 기원전 566년으로 보면, 봉다가 35세에 도를 이루어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으므로 불교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531(=566-35)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봉다가 입멸한 것은 기원전 486년이고, 교단의 첫 분열은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386년경에 일어났다. 따라서 초기 불교란 대략 기원전 531년에서 386년까지의 불교라고 할 수 있다.

봉다 자신은 아무것도 글로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가르침은 '말'로써 베풀어졌다. 그 직계 제자들도 미친가지였다. 그들이 봉다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서 경전의 형태로 정리한 것은 봉다가 입멸한 직후였지만 문자로써 한 것이 아니고 말로써 했다.

봉다가 열반한 바로 그 해 안겨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스승에게서 들었던 가르침을 기억해 내어서로 확인한 뒤 암송해서 머릿속에 정리했다. 이것이 제1차 결집이다. 이 결집에서 편집된 경전은 봉다가 행한 45년간의 가르침이 모두 담라된 것은 아니었다. 봉다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서 결집에 참석했던 제자들이 기억해 낼 수 있었던 것만이었고 또한 출가 수행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내용이 주였다. 재가 신도들에게 베풀었던 봉다의 수많은 가르침은 대부분 제외되었다. 이렇게 결집한 봉다의 가르침은 먼저 직계 제자들의 기억 속에 간직되었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전달되면서 수백 년간 전승되어 내려왔다.

이 첫 결집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해도 그때 만들어진 경전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경전들은 그 첫 결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첫 결집이 있은 지 약 100년 후 다시 결집이 행해졌는데 이것이 제2차 결집이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결집이 더 있었다. 초기의 경전은 모두 제자들의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해내려 왔기 때문에 세월과 더불어 잘못 전해지기도 하고, 그 자신들의 해석이 보태지기도하면서 내용이 변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 경전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집이 필요했던 것이다.

봉다의 가르침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였다. 그러나 문자로 된 최초의 경전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은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최초의 문자 결집 때 만들어진 경전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같은 사정이므로 현재의 자료로서 봉다가 가르친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초기

불교를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인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최초에 만들어진 경전과 현재 우리가 가진 경전 사이에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전이 오랜 세월동안 변천하면서 성립되었다고는 해도 현재의 경전은 최초의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경전, 특히 아함경에서 볼 수 있는 중심교리들은 봉다가 직접 가르쳤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초기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리를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봉다 깨달음의 내용인 연기법, 그리고 연기법의 응용이나 실천 이론들인 12연기, 사성제, 오온, 무아, 무상, 삼법인, 윤회, 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2. 봉다의 생애

"부처님"이라는 명칭은 봉다(Buddha)라는 인도 말에서 나온 것이다. '봉다'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이다. 글자 그대로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중국 사람들은 "깨달은 자(正學)"라고 번역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모두 봉다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분 역시 정각을 이루고 난 뒤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 봉다의 본 이름은 샷다르타이고 성은 고파마이다. 그래서 봉다가 아직 도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고파마 샷다르타'라고 불렸고, 도를 이룬 뒤에도 때로는 '고타마 봉다'라고 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까무니(석가모니)라는 명칭은 '야까 종족 출신의 성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봉다는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까밸라바스투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던 샤캬족이 세운 왕국의 슈도다나(淨飯王) 왕을 아버지로, 마야데비를 어머니로 태어났다. 까밸라바스투는 현재의 네팔 남쪽, 인도와 접경을 이루는 페라이 분지의 빌라우라꼬뜨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다. 샤캬족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었던 작은 부족이었고, 까밸라바스투는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였

던 꼬살라국에 종속된 작은 나라였다.

마야부인은 아기를 낳기 위해 그 당시의 풍속에 따라 친정으로 가던 도중 룸비니라는 동산에서 샷다르타를 낳게 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마야부인은 그 동산에 만발했던 무수수의 꽃을 한 가지 꺾기 위해 나뭇가지를 잡자 아기가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한다. 이것이 샷다르타의 우협탄생 설화이다. 마야부인은 아기를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부인의 동생인 마하쁘라자빠띠(大愛道)가 양모가 되어 샷다르타를 키웠다.

봉다의 탄생연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말할 수가 없다. 80세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관계된 모든 불전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이 80세가 되었던 때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로 언제인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봉다의 연대를 계산해 내는 근거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북쪽 지역으로 전해진 문현(북방 불교 전승)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 지역으로 전해진 것(남방 불교 전승)이다. 북쪽으로 전해진 자료에 의하면 부처님은 기원전 383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출생연대는 여기에다 80을 보태어 기원전 463년이 된다. 그러나 남쪽으로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일멸연대가 기원전 486년이므로 탄생연대는 기원전 566년이 된다. 이 두 연대 사이에는 약 100년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 학자들은 기원전 566년의 연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연대 이외에도 세계 불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연대가 있다. 이것은 1956년 네팔의 카투만두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 불교 대회 때 정한 것이다. 남방 불교의 전통에 의하면 1956년은 봉다가 돌아가신지 2,500년이 되는 해였다. 이것은 기원전 544년에 봉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된다( $2,500 - 1,956 = 544$ ). 그러므로 여기에다 80년을 보태면 봉다의 연대인 기원전 624년이 된다. 이것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연대보다 58년이 더 많은 것이다.

탄생 날짜 역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 4월 8일을 봉다의 탄생일로 생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남방 불교 전통에 의하면 인도 달력으로 2월인 바이샤카(음력 4월)의 보름날이다.

싯다르타는 한 나라의 왕자로서 온갖 호사가 갖추어진 왕궁에서 살았다. 전설에 의하면 싯다르타는 봄과 가을을 위한 궁전과 여름을 위한 궁전, 그리고 겨울을 위한 궁전 등 '삼시전(三時殿)'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의복도 당시에 가장 고급이었던 바라나시산 옷감으로 만들 어 입었고 면지와 태양을 막기 위해 일산(日傘)을 든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후기에 만들어진 불전에서 이긴 하지만 그는 왕자로서 받아야 할 모든 교육과 기예를 익혔다. 16세에 이웃 나라의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했다.

싯다르타는 이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런 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그 가운데서 특히 생, 노, 병, 사와 같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더는 일상적인 삶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보다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문유관(四門遊觀)'이라는 이야기로서 설명하고 있다. 싯다르타가 까밸라바스투의 동서남북 4성문 밖으로 산책하러 나갔다가 노인과 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나 인생의 근본적인 고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북쪽 문으로 나갔다가 출가해서 수도하는 수행자를 만남으로써 자신도 그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들 라훌라가 태어나자 싯다르타는 드디어 출가 수도의 길에 나섰다. 그때 그의 나이는 29세였다. 싯다르타는 까밸라바스투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0리의 거리에 있는 바이살리로 갔다. 거기에서 알라라칼라마라는 수행자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만족할 수 없었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그리하(王舍城)로 갔다. 라자그리하는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문화 중심지였다. 싯다르타는 그곳에서 다시 우드라까라미뿌뜨라라는 스승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역시 그가 구하던 것을 얻을 수 없었다.

싯다르타는 전통적인 수행자들로부터는 기대할 바가 없음을 알고 그 나름대로 수행을 하기로 했다. 그를 따르던 5명의 수행자와 함께 자리를 잡은 곳은 라자그리하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우루벨라 마을

의 네란자라강(尼連禪河) 부근이었다. 현재 보드가야의 동쪽이었다. 봇다는 그곳에서 극심한 고행에 몰두했다. 그러나 몸만 상했을 뿐 결과는 없었다. 출가 전에 왕궁에서 체험했던 환락한 생활로서도 그리고 출가 후 그때까지 해온 고행으로서도 도를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법을 바꾸어 고행을 포기하고, 지나친 고행도 아니고 역시 지나친 폐락적인 행도 아닌 중도적인 수행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수행처 근방 마을의 수자타라는 처녀에게서 우유·죽을 공양받고 기운을 회복했다. 그러자 5명의 동료 수행자들은 싯다르타가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결을 떠났다. 그는 혼자서 네란자라강을 건너 서쪽 편 언덕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의 한 나무 밑에서 수행을 계속했다. 드디어 서팡이 비쳤다. 어느 날 새벽 그가 오랫동안 그렇게 진지하게 추구했던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고타마 싯다르타는 봇다, 즉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5세였고 집을 나온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정각을 이룬 후 봇다는 지난날 그를 버리고 떠났던 5명의 동료 수행자들을 찾아 보드가야에서 600리나 떨어져 있는 바라나시 근방의 녹야원으로 갔다. 봇다는 5명의 수행자에게 지나친 고와 낙의 두 극단을 벗어난 중도와 고, 짙, 멀, 도라는 사성체에 대한 가르침을 폈다. 5명의 수행자 가운데서 까운디나(阿若 憨陳如)가 가장 먼저 봇다가 가르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4명의 수행자도 차례로 봇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 5명은 봇다의 최초 제자들이 되었다.

녹야원에서 베풀어진 이 최초의 가르침을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 한다. 즉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렸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法)' 이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봇다의 이 첫 설법은 불교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불교의 시작은 이 초전법륜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봇다(佛), 봇다가 발견한 진리인 법(法),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인 상가(僧) 등, 교단의 구성요소가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교단 구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3가지 보배라고 부르게 되었다.

5명의 수행자가 봇다에게 귀의한 직후 바라나시

의 한 장자의 아들 야사가 봇다 밑으로 출가했다. 뒤따라 야사의 부모와 처가 귀의하게 되어 최초의 재가신자가 되었다. 역시 그의 친구 4명과 다른 친구들 50명이 그를 따라 출가했다. 이제 60명의 제자를 거느리게 된 봇다는 그가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그의 결을 떠나라고 말했다.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거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이것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전도선언(傳道宣言)이다.

봇다 자신도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난날 수해 장소였던 우루벨라로 되돌아갔다. 그곳에는 불을 송배 하던 배화외도인 까사빠 3형제와 그들이 거느린 1,000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봇다는 이들을 모두 제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라자그리하로 가서 마가다국의 빔비사라 왕을 귀의시켜 재가 신도로 만들었다. 왕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라자그리하 근방에 있던 죽림원에 절을 지어 봇다에게 기증했다. 이것이 죽림 정사로서 불교 교단의 최초의 절이 되었다.

봇다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리뿌뜨라(舍利弗)와 마우드갈라야나(目連)가 동료 수행자 200명과 함께 봇다에게 귀의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마하까샤빠(大迦葉)도 비슷한 시기에 입단했다.

봇다는 성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고향 까밸라바스투를 방문했다. 그때 그의 4촌 동생인 아난다를 비롯한 많은 사가족의 청년들이 봇다를 따라 출가했다. 그리고 어린 아들 라훌라도 아버지를 따라 출가했다. 이보다 뒷날의 일이지만 여성들의 출가도 허용되어서 부처님을 양육했던 이모 마하쁘라자빠띠와 부인 야소다라를 비롯한 사가족의 많은 여성이 출가했다. 이것은 비구니승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봇다의 재가 신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슈라바스띠의 수닷따 장자의 귀의는 부처님의 활동범위를 서북쪽으로 확대시키는데 절대적인 이바지를 했다. 그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음식 공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급고독장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다. 장자는 라자그리하에서 봇다를 만나 귀의하고 나서 슈라바스띠로 돌아가 제마태자의 동산을 사서 그곳에 절을 세워 승단에 기증했다. 이것이 기원 정

사로서 죽림 정사와 함께 초기 불교 교단의 2대 근거지가 되었다. 슈라바스띠의 빤라세나것 왕과 밀리카 왕비도 봇다의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봇다에게 귀의해서 제자로서 또는 재가신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했다.

봇다의 가르침은 별 어려움 없이 갠지스 강 중류 지방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나갔다. 초기 경전에 나오는 지명으로 봇다의 행동반경을 추정해 보면 북쪽으로는 까밸라바스투, 남쪽으로는 보드가야, 동쪽으로는 양가국의 창빠, 서쪽으로는 꼬삼비를 경계로 한 동서 약 550km, 남북 약 350km의 지역이었다.

봇다의 만년은 순탄하지 못했다. 사촌 동생인 데바닷따가 교단의 분열을 피한 일도 있었다. 그는 몇 번 인가 봇다의 살해를 기도했다. 또 빤라세나것 왕의 아들 비두다바가 즉위하자 왕자 시절에 샤까족으로부터 받았던 수모를 풀기 위해 까밸라바스투를 침공해서 샤까족을 멸망시켜 버린 일도 있었다. 봇다의 아들 라훌라, 그리고 두 큰 제자 사리뿌뜨라와 마우드갈라야나가 봇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봇다는 80세를 끝으로 45년간 긴 교화 행각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충실한 사봉이었던 사촌 동생 아난다와 라자그리하의 영취산을 뒤로하고 마지막 여행길을 떠났다. 바이살리에서 우안거를 보내면서 심한 병에 걸렸다. 위독해지자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것을 아난다에게 예고했다. 건강이 다소 회복되어 다시 여행을 계속한 봇다는 꾸시나가라 근처의 파바라는 마을에서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올린 공양이 탈이 되어 중병에 걸렸다. 봇다는 꾸시나가라 변두리의 사라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두 그루의 큰 사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짤게 하고 그 위에 누워 열반에 들었다. 그것은 기원전 486년으로 봇다가 80세 되는 2월 보름날이었다.

봇다가 열반에 들자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여 봇다의 유해를 화장했다. 봇다의 몸에서 많은 사리가 나왔다. 장례에 참석했던 여덟 나라의 왕들은 사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켰다. 결국, 드로나라는 브리만의 중재로 그들은 사리를 여덟 뜻으로 똑같이 나누었다. 그들은 그것으로 탑을 세웠다. 이것이 불탑의 효시로서 봇다의 사후 불교도들은 이 탑을 그들의 신앙 대상으로 삼았다. ●

〈다음 호에 계속〉

## 불교 음악 범파의 세계

부 견 / 대교과

대중 스님들은 중요무형문화재인 영산재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산재의 범파 소리를 좋아하는 대교반 부견입니다.

타악기 중에서도 특히 드럼을 좋아했던 저는, 어린 시절에 퀸의 음악을 들으며 각종 통을 뒤집어 놓고 드럼 소리를 흉내 내곤 했습니다. 출가 이후에는 음악 듣는 것을 삼가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절에서 열린 미륵 영산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환희심이 나던지, 그때부터 저는 범파에 나오는 징과 북소리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범파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법문은 범파(梵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파란 불교의 의식 음악으로 일명 범음(梵音), 어산(魚山), 또는 인도에서 전해졌다고 해서 인도(印度) 소리, 의식을 이끄는 소리라고 해서 인도(引導) 소리라고도 합니다. 범파는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이며 가곡(歌曲),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의 하나로 장단이 없고 단성 선율이며 의식 음악이라는 점에서 서양의 그레고리안 성가와 상통하는 음악입니다.

범파는 묵음보살이 영축에서 헌악공불(獻樂供佛)을 함으로써 비롯되었고, 중국에서는 위(魏)나라의 조자건이 고기 노는 모양을 보고 범파를 익혀 이를 어산(魚山)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범파는 진감선사가 옥천사에서 보급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휴정의 제4세손인 법민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동안 범파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하동 쌍계사의 진감선사 '대공 탑비문'에 의하면, 진감선사는 804년 세공사로 당나라에 갔다가 830년에 귀국하여 옥천사(玉泉寺), 즉 지금의 쌍계사에서 많은 제자에게 범파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파는 주로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생전예수재, 수릉재, 영산재 등 5가지 재에 사용됩니다. 상주권공재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본이 되는 재(齋)로서 보통 하루가 걸립니다. 49재나 소상, 대상 때 하는 규모가 작은 재이고, 무속의 오귀굿이나 셋김굿에 해당합니다. 상주권공재의 의식순서는 대개 시련, 대령, 관욕, 신중단, 봉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련은 망자를 이끌고 국락으로 갈 나무대성인로 왕보살을 모시는 의례이고, 대령은 영가를 대접하는 의례이며, 관욕은 텁진치로 때 문은 영가를 깨끗이 씻기는 의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신중단은 도량옹호를 부탁하는 의례이고, 상단은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이며, 봉송은 망자를 영원히 국락세계로 보내는 의례입니다. 시왕각배재는 일명 대례왕공문이라고도 하며 상주권공재보다 약간 규모가 크고, 저승에 있는 10대 왕에게 자비를 비는 의식입니다. 수릉재는 수중고흔을 위로하는 재로서 끝 부분에 방생재를 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산재는 가장 규모가 큰 재로서 3일이나 걸리는데,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武運長久) 또는 큰 단체나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의식입니다. '1일 권공, 3일 영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만 봐도, 영산재는 규모가 크고 그 내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파 승들은 상주권공을 배운 다음 시왕각배를 배우고 맨 마지막에 영산재를 배우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범파는 단순히 사자를 왕생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도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여러 중생이 모인 가운데 법화경을 설하실 때의 장엄한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부처님의 참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자의 본분이며, 그것에 충실히 할 때에 생사 일대사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산재를 본 대중들은 환희심(歡喜心)을 내고 나아가 발심(發心)해서 불문(佛門)에 입문(入門)하기도 하니, 이 역시 하화중생(下化衆生)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1,600년의 불교역사를 이어오면서 실로 눈부신 문화와 왕성한 교화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우리 교계의 실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체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영산재와 같은 불교문화를 통해 출가자와 재가불자 모두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부처님의 혜명을 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량에는 목련꽃과 매화꽃이 한창입니다. 석가여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랫소리 범파를 들으며 봄꽃의 향기를 한껏 만끽하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중 스님 여러분,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십시오. ☺

## X-레이 검색대를 지나며

원묘 / 운문승가대학 강사

지난겨울 방학을 기해서 미국을 다녀왔다. 미국은 내가 십 년 이상 머물렀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느끼는 새로운 인상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테러 방지 위한 공항의 보안검색이었다. 여행자들의 소지품 검색은 경직되고 불안하게 하며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 까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여행을 하기 위해 비행기 출발 2~3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이유도 이 보안검색 때문이다. 검색 대기 줄은 어느 곳이나 길며, 시장과 같이 북적댄다. 나도 한 줄에 동참하여 X-레이 금속 탐지기 아래를 지나는 여러 형태의 승객을 바라봤다.

거의 상체를 드러내고 타이츠 같은 하의를 입은 여성이 X-레이 밑을 지나간다. 무사통과다. 얼굴에 안도감과 미소가 번지며 자신의 선량함을 증명해준 것에 감사해 한다. 그녀는 봄날의 나비처럼 앞으로 날아간다. 부럽다. 겹겹이 껴입은 승복의 무게를 느낀다.

문제는 그 뒤에서 있던 중년신사였다. 컴퓨터 가방, 목직해 보이는 카메라, 휴대전화기, 외투, 모자, 주머니에서 털어놓은 잡동사니, 반짝이는 구두 등 풀어놓은 살림살이는 몇 바구니가 된다. 이 신사는 혁 대를 풀어놓아서 곧 흘러내릴 것 같은 바지를 부여잡고, 한 손에는 여권과 탑승권을 들고, 맨발로 검색대 밑을 지났다. 그러자 이 기계는 빨간 불과 함께 “토해내시오, 더 털어내시오! 나를 속일 생각일랑 마시오.” 하듯이 ‘삐 삐삐’ 신호음을 냈다. 검사관이 다시 한 번 지나가 보라고 손짓한다. 사슴 같은 표정으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삐삐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 신사는 한번 어깨를 들어 올렸다. 무언가를 사정하듯 풀죽어 보였다. 장갑 끈 검사관이 나온다. 표정이 상당히 근엄하다. 한의원 벽에 불

어 있는 인체 모형처럼 팔 벌려 세우더니 앞과 뒤를 조사한다. 그리고 갈 것을 허락한다. 시간이 좀 흘렀다. 신사는 몇 개의 바구니를 한꺼번에 가슴에 안고 허접지겁 구석으로 사라진다.

내 차례가 되었다. 검사관이 미심쩍다는 듯 바라봤다. 나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숨 한번 깊이 고르고 귀신이라도 잡아낼 것 같은 X-레이 장비에게 속삭였다. ‘입 다물고 있어라.’ 다행히 검색대는 울리지 아니했다. ‘착하지, 말도 잘 듣네.’ 그러나 검사관은 유리 상자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한다. 인정사정없는 첨단장비가 나의 결백함을 증명했는데 이번에는 인간이 태클을 거는 것이다. 외과수술을 준비한 의사같이 훈장을 끈 여성검사관이 나타났다. 얼굴만 빼놓고 앞과 뒤를 더듬기 시작한다. 주의 깊게 훑어내리던 그녀의 손은 헐렁한 폭넓은 승복 고의에 가서는 한 땀 한 땀을 더듬고 당겨본다. 고의가 접혀진 허리 부분에서는 더욱 기분 나쁘게 굴었다. 젓가락 폭탄이라도 찾는 것인지……. 내 인생, 십 대에 출가한 이후 인격의 중심체인 몸을 타인의 의도대로만 지켜지며 조사받아 본 적이 없다. 오! 인신(人身)! 업보의 몸이여!

이날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내 뒤에 어린이를 안고 있던 중국여성이었다. 아이는 무슨 심사가 틀렸는지 손가락을 공항 반대쪽을 가리키며 짜증스럽게 울고 있었다. 엄마는 사정하듯 달래고,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도 손을 흔들어 준다. 검사관들은 로봇과 같이 무심히 내려다본다. 이 악동과 함께 엄마는 검색대를 지나야 한다. 난감하다. X-레이도 수동감식기도 이 여성은 힘들게 했다. 마침내 사람의 손길이 해결점을 찾았다. 머리에 실 편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럴 땐 좀 대강 넘어가도 좋으련만……. 끝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와 함께 모두 집요하다.

이렇듯 모든 사람을 이 잡듯이 뒤지고 검사하고 기록하고 저장한다. 이것도 모자라 요즘 들어서는 ‘알몸 투시기’로 불리는 전신투시 스캐너(full-body scanner)를 추가 설치하여 가동을 시작했다. 아마도 여행자들의 유전자까지 탐색 되어 질 날이 올 것이다.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경찰견, 안보요원, 첨단기계, 셀 수 없는 보안 장비들 갖추어야 할 것들은 넘치도록 준비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는 이상하게도 오늘오늘 공포와 불안에 잠 못 자는 것이 아닌가. 인간을 벗기고 벗겨 투명해지는데, 불신은 깊어간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었고, 믿음의 신호음은 뚜뚜두우 멀어져 간다.

몸은 둥지 안에 있는 것 같으나, 마음에는 파도만 일어난다. 여기서 눈먼 거북을 위한 선기귀감의 한 말씀 전해낸다. “만약 부처에게 매달려 구하면 그는 부처에게 얹매일 것이요, 조사에게 매달려 구하면 또 한 조사에게 얹매이게 되리라.”(大丈夫 見佛見祖 如冤家 若着佛求被佛縛 若着祖求被祖縛)♣

## 『臨終의례 문화와 佛教徒의 역할』 II

- 초기경전과 현대과학을 통해 본  
Buddha의 Well-dying 사상을 중심으로 -

자경 / 사교과

\* 이 논문은 제5회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논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목 차

- I . 시작하는 말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 II . 불교와 과학으로 본 생명과 죽음의 이해
  - 1. 종교와 과학의 통섭
  - 2. 생명의 근원
  - 3. 죽음의 이해
- III . 현대사회의 Well-dying 문화와 임종의례
  - 1. Well-dying 문화
  - 2. 임종의례 문화
- IV . Buddha의 Well-dying 사상과 임종의례
  - 1. Buddha의 Well-dying 사상
  - 2. 불교도의 Well-dying
  - 3. 현대사회의 불교 임종의례
- V . 임종의례 문화 정립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
  - 1. 불교도의 정체성 확립
  - 2. 불교적 Well-dying 문화운동
  - 3. 차별화된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연구
  - 4. 불교도의 임종의례 문화
  - 5. 다양한 불교 임종의례 개발
  - 6. 불교 임종의례 관련 인프라의 구축
  - 7. 불교 일생의례의 표준화와 생활화
- VI . 맺음말

## IV . Buddha의 Well-dying 사상과 임종의례

진정한 불교도란 무엇인가?  
현대의 불교도들은 봉다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불교적인 죽음 준비란 무엇인가?

### 1. Buddha의 Well-dying 사상

불교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포함한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2,600여 년 전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고타마 봉다에 의해 제시된 가르침이다. 싯 다르타는 어린 시절 어머님의 죽음과 농경지 사회에서의 약육강식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해 사유하게 된다.

봉다는 인간 개개인이 안고 있는 심리적 한계와 모순을 파헤쳤을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중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시 인도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민중의 아픔을 대변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2,550년 전 인도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부터 기원정사를 비롯하여 봉다께서 머무신 큰 사원마다 열반당을 만들어 병든 수행자와 중생들을 보살폈다.<sup>1)</sup>

봉다께서 직접 열반당에 오시어 병고 중에 있는 중생들의 피고름을 닦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열반에 들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하셨다. 봉다는 간병인의 자세와 죽음을 앞둔 자세, 간병을 가서 위로 해줘야하는 상황들에 대해 자비평등의 사상을 실천하신 분이다.

봉다는 바라문들의 제사를 비판하시며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 삼보에 귀의하는 것, 학습계목을 받아 지니는 삶, 계·정·혜를 구족하여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해탈·열반이라는 최고의 과보를 가져다주는 최상의 제사라고 설하셨다. 十善業道 등의 계행과 선정과 지혜 등 제사가 아닌 욕망을 여읜 지혜를 자각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중시하였기에 초기부터 불교는 제사 등의 복잡한 의례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시하고 계를 잘 지니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가르쳤다.<sup>2)</sup> 이렇듯 봉다는 Well being의 삶 속에서 Well dying을 실천하신 분이다.

### 2. Buddha가 제시한 불교도의 Well-dying

불교도(佛教徒)의 사전적 의미는 불교를 믿는 신도 또는 불교를 믿는 무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불교도들은 봉다처럼 웰다잉을 실천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도는 '열반'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봉다는 내생에 '천상'과 같이 좋은 곳에 태어나려면 "남에게 많이 베풀고, 지극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봉다는 해탈하지 못한 보통사람인 일반 재가 신자들을 위해 베풀[施]과 자율적인 규범의 실천[戒] 그리고 천상[天]에 기기 위한 次第설법을 하셨다.

죽음을 주제로 한 수행법으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즉 사념(死念)이다.<sup>3)</sup>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극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해탈의 추구, 즉 열반이며, 네 가지 고귀한 진리[四聖諦]로 대표되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인 고멸성제 즉 열반의 실현에 있다. 곧 불교의 목적을 이루는 일은 바로 죽음을 극복한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중도(中道)의 가르침은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봉다는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 실천하도록 설명해주신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건전한 마음의 상태로서 그 자체가 번뇌이다. 봉다는 죽기직전 기도만 열심히 해도 천상에 날 수 있다는 바라문에게 기도만으로는 천상에 갈 수 없다고 설하신다.<sup>4)</sup> 이렇듯 불교도는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 언제든 죽음

을 맞이 할 수 있는 봉다의 웰다잉의 가르침을 새기며 살아야 한다.

### 3. 현대사회의 불교 임종의례

대한불교조계종을 중심으로

종교가 토착화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관혼상제의 통과의례를 장악함에 있다.<sup>5)</sup> 신도수가 50만 명에 불과했던 천주교가 5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게 된 것은 상·제례 문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이웃종교의 상·제례 사업은 발전단계를 지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sup>6)</sup>

불교 임종의례는 타종교나 종파의 임종의례들(천주교의 병자성자, 기독교의 임종예배, 천태종의 구병시식, 원불교의 열반식, 티베트의 치케바르도 등)<sup>7)</sup>이 죽음을 전제하지 않는 병자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임종 직전, 직후의 형식적 의례를 중시하는 것임에 반해 임종환자의 전인적 케어와 주체적, 능동적 참여를 통해 죽음을 맞게 하는 과정적 의례라 할 수 있다.<sup>8)</sup> 임종의례에 참여하는 자는 스님이나 법사 등의 집례자인 의례주체와 임종자, 가족, 간병인이나 호스피스와 같은 케어 봉사자 등이 대상이 된다. 신들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부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반을 향한 해탈의 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웃종교의 system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현 시점에서 불교적 임종의례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불교 임종의례는 그 원형이나 시원에 대한 자료연구나 이에 대한 복원, 정립 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sup>9)</sup>

1) 지금도 기원정사에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처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열반당 유적지가 보존되고 있다.

2) 디나니까야 제 1권 p.372, 주석389, 디나니까야 제 1권 (마할리 경) D6 :15.

3) 사념은 10가지 마음챙김(十念) 가운데 하나이며 한역에서는 염사(念死)로 번역되어 있다. 4) 아씨반다까띠따 경 SN.IV. 311.

5) 한보광, 「상·장례를 통한 포교의 활성화 방안」, 전국 본·팔사 주지 연수교재, 2004. 6) 유재철, 불교신문, 2008.5.20.

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불교 상제례문화 연구, 조계종출판사, 2008.

8) 강동구 <불교 임종의례의 정의와 내용>, 제32차 포교종책연찬회, 2009.

9) 한국불교가 이처럼 의례 불교화(儀禮 佛教化)된 것은 조선시대로 배불정책 하에서 불교는 교학(敎學)의 부진, 교단의 쇠퇴 등으로 말미암아 상층사회에 포교의 기반을 잃어 버리고, 그 대신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한 의례불교가 크게 성행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의례불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례요집(儀禮要集)의 새로운 정비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근대에 와서 안진호(安震湖) 스님이 1931년 <석문의법(釋門儀法)>을 편찬했다. 석문의법의 특징은 개체 불교의식집에서 강조한 의식음악인 범례(梵唄)의 기능보다는 지금까지 별도로 유행하고 있던 세분화된 의식문을 교리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간추려 재편성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중에는 아직도 비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비가 요망되고 있다.

## V. 불교 임종의례 문화 정립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

### 1. 불교도의 정체성 확립

기복신앙, 보살신앙, 봉다의 신격화와 영험위주의 풍토, 깨달음으로 치우친 수행, 최근 초기불교·티벳불교 등 다양한 수행체계 등으로 인한 다종교·다문화 시대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는 중요하다. 재가불자들의 직접적인 시주에 의존하지 않은 불공, 각종 재(齋) 등의 특별수입에 의존한 시주문화는 기복에 치중된 한국불교의 오랜 관습이 남방불교 수행법의 확산 및 서구 불교의 역수입으로 흔들릴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도 스스로가 정법을 수행하고 평는 사람이 되어야 불교도의 자긍심이 회복되고 주체성도 강화될 수 있다.

### 2. 불교적 Well-dying 문화운동

웰빙사회의 가장 기본전제는 나눔의 실현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普提 下化衆生: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한다)과 사무량심(四無量心)으로 give & take가 아닌 無住相布施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베푸는 마음으로 함께 나눈다는 실천정신이 불교도 나눔의 정신이다.

또한 불교도는 戒律로써 종교인의 도덕성·윤리성을 확립하며 인연법, 인과법, 무아를 통해 생사관을 정립해야 한다. 四聖諦와 中道의 가르침으로 八定道와 六波羅密, 四念處를 죽음을 극복하는 수행법으로 불교도의 Well dying을 정진해야 할 것이다.

### 3. 차별화된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연구

불교적 생사관에 입각한 다양한 죽음유형별 죽음준비 교육개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임종자의 살아온 환경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터미널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교육 후 봉사로 연결하여 그 가르침을 보살행으로 회향하는 실천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죽음준비의 방편으로 음악을 쓰임으로써 자신의 죽음준비를 하도록 하여 보살행의 중요성을 자각시킨다. 또한 49재를 통한 사별가

족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불교적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불교적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 4. 불교도의 임종의례 문화

실천적 과제	실천적 방안
1. 불교 병원 & 영면실 건립	•양상기도문의 표준화된 기도문 발간을 위한 연구 →발원과 희생문의 기도집 →집회와 병원, 회향이 담긴 불교적 양상 기도집의 모델
2. 불교 호스피스 병동	•불교가 아방하게 치를 수 있는 불교식 장례문화 시설 구축 →장례시설(회장터, 장례수목장 등)
3. 불교 회장터 시설 구축	•특히 수행자의 터미널케어에서 임종의 별실이 필요 →수행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힌지복개별 일반인과는 살아온 생활방식 유지에 따른 차별화된 별실이 필요
4. 불교 장례서비스업체 구축	•붓다 당시의 열반당과 같은 임종봉실 필요 수행자로서의 慈樣을 존중해주는 시스템 필요

### 5. 다양한 불교 임종의례 개발

죽음에 대한 정의와 터미널케어의 임종의례 과정에서 어떠한 불교적 입장은 취하는가에 따라 불교의 임종의례의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한다. 임종의례 과정에서 영적케어문제는 죽음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의 죽음의 유형에 따라 임종자의 환경이 다르므로 임종의례의 대상에 대한 적절한 죽음유형별 방편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의식을 집행하는 임종의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 6. 불교 임종의례 관련 인프라의 구축

웰다잉에서 장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불교적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그 과정 속에서 불교의 자궁심과 교리의 궁정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 기존의 이웃 간의 상조회 역할을 현대의 종교 신앙 공동체로 그 역할이 변화된 만큼 봉사단체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로 불교도들이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종단 측 위주로 전문기관에서 각 사찰 봉사단의 인프라 구축 활성화가 필요하다.

### 7. 불교 일생의례의 표준화와 생활화

한 사람의 종교化는 태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특히 유아기에 접한 문화는 결혼, 임종, 장례로 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례나 문화는 당대의 특정인이 특정의도를 가지고 단기간에 창조될 수 없다. 문화는 일단 확립되면 자체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그 기능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생의례를 정립하고 표준화하여 '세살 적 버릇 여든 같다.'고 하듯 불교문화에 익숙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불교의 동불을 밝혀야 한다.

## VI. 맷음말

밤하늘, 특히 성도재일의 새벽별을 바라볼 때면 봇다는 과연 저 우주너머 수많은 별들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달은 걸까? 궁금해지곤 한다. 그렇게 시작한 의구심은 우주에서부터 지구의 작은 미물에까지 불교적 Well dying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불교도라면 우주와 우리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주만물은 모두 평등하다는 연기와 인과를 믿고, 불교적 생사관의 가르침을 나침반으로 삼아 발원과 회향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불교가 생사를 초월한 열반의 추구가 궁극적 목표라면 이미 2,600년 전에 봇다는 웰다잉 사상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엔 불교적 죽음문화가 상실됐다. 그것은 한국불교의 주체성·정체성의 부재를 의미한다.

불교는 삼보(三寶)를 근간으로 하여 오랫동안 인도 사회 속에 존속했다. 승보를 통해 사회성을 확보하고 불교를 역사적으로 전승시켰다. 그러나 인도에서 불교 교단은 갈수록 正法(붓다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불교)보다는 方便불교(주술, 기도, 기복으로 치닫는 불교)가 성행하면서 힌두교 문화 속에서 불교의 독자성과 그 특성이 사라져 불교와 힌두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대중의 지지를 상실, 승보가 사라지고 힌두교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졌다라는 점은 현대사회 불교도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종교가 사회적 기능, 종교의 윤리적·도덕적 기능을 사회에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무신론자 등 신종교의 출현이나 개종현상 등이 발생하여,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종교는 소멸되어 갔음을 종교사

는 중언한다. 현대의 다종교문화에 사는 한국불교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관심을 갖고 미래불교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하지만 정체성과 주체성을 갖추지 않은 무조건적인 수용은 진정한 자비·不二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확립된 정견이 수반된 지혜로운 다종교문화의 수용은 한국불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 희망적인 한국불교문화를 창조할 것이다.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혜로운 방편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는 영원불변의 진리인 봇다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봇다가 다시 오신다 해도 2,600년 전과 다름없는 가르침을 설하셨을 것이다. 진흙 속에 잠겨 있어도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향기같이 계·정·혜·삼학과 육바리밀의 수행, 信心에 의한 발원과 회향의 삶을 통해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불교도일 것이다. 선제 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求法萬行을 하듯 100일간 홀로 걸어온 논문준비를 통해 불교도로서 수행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도는 두려움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봇다의 Well being & Well dying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 수행의 나침반으로 불교도에게 제시하신 봇다의 마지막 유훈을 다시금 새기며 본 논문을 마친다. ●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장아합경』『유행경』-

### 〈참고문헌〉

-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문화운동을 위한 불교의 과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008.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불교 상제례문화 연구』, 2008.
- 제17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9년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
- 최근 한국사회의 죽음의례, 2009.6.20, 출판문화회관.
- 비교민족학회, 2009년도 비교민족학회 춘계학술대회(아시아 일생의례의 비교연구).

## 불교학원(佛教學院)

김 지 상 / 화광문화재연구소, 중국국가박물관수복연구원

중국 북경에는 8개 정도의 고찰이 있다. 그중에서 교육기관으로 대표가 되는 사찰을 소개해 본다. 통교사와 법원사는 불교학원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중국 불교의 기반이 되는 교육기관이다. 통교사는 소박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법원사는 남성적이고 개혁적인 매력을 지닌 사찰이다.

사람들이 ‘재봉틀 골목’이라고 부르는 동직문내대가(東直門內大街) 침선(針線)후통에 위치한 비구니 사찰 통교사(通教寺)는 높다란 빌딩들 숲 속에 자리한 작고 소박한 고찰이다.

통교사는 명나라 때에 태감이 만든 사찰이었는데, 청나라에 들어오면서 비구니 사찰로 바뀌어서 지금에 이른다. 그러나 청나라 때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전각과 불상이 많이 파손되고 경내도 황폐해지고 만다. 이후에 노스님 한 분과 주지 법사만이 고요히 수행하며 통교사를 지키다가, 1942년 항일 전쟁 중에 복건(福建)에서 개해(開慧)와 승우(勝雨) 두 명의 비구니 스님이 올라와 주석하면서 재건하게 된다. 또한, 사부대중을 결집하여 통교사 중수에 힘을 보탠다. 오현당과 불당을 마련하고 스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도 건설한다. 이것이 오늘날 통교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시발점이다.

이곳에는 비구니 스님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팔경학원(八敬學苑)도 있다. 약 3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을 배출하고 나서 통교사의 명성도 차츰 알려지기 시작했고 포교활동도 활발해졌다. 통교사는 정토종을 기본으로 하며 불경을 공부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계율이 매우 엄격해서 일하지 않는 자와 염불을 외지 않는 자, 경전을 공부하지 않는 자는 지위와 노소를 막론하고 사찰에서의 대중 생활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이에게 적용하는 법과 규칙이 공정하여 항상 많은 대중이 모여서 정진했다고 한다.

1949년 신중국 이후, 통교사 스님들은 “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규칙을 지켜서 그들 스스로 재봉

틀로 승복을 지어 입고 사회 봉사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던 통교사도 문화 혁명의 수난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문화 자체가 훼손되던 시기라 통교사의 불상과 경전 등 대부분이 소실되고 경내가 폐허로 변하여 산문이 폐쇄된다. 또한, 많은 사찰과 궁들도 파괴됐다. 중국의 대표 건축물인 자금성도 이때 폐허로 변한 걸 보면 가히 문화 파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1979년에 문화의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종교의 해금(解禁)으로 통교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다시금 산문이 열리게 된다. 흩어져 있던 스님들이 들어오면서 10여 명의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통교사를 다시금 중수하게 된다. 대웅보전, 오관당, 청태 기숙사 등이 중수되었는데 그중에서 독특한 건 대웅보전 건물이다. 이 법당 안에는 선재 동자 53화상이 그려져 있다.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통교사의 하안거 기간으로 모든 비구니 스님들은 계를 익히며 중병을 얻지 않는 이상은 산문 출입을 금한다. 각자 정해진 소임을 살고 하루 동안 공부한 경전 내용과 그에 따른 일들을 매일 점검한다고 한다. 어떤 스님은 80권 화엄경을 외우거나 혹은 불경을 초록하기도 한다. 하안거를 하는 동안은 戒·定·慧·三學을 준수하고 대부분이 철야를 할 정도로 신심이 강하고 엄격한 규율을 잘 지킨다고 한다.

현재 통교사에는 20대 스님부터 90대에 이르는 노스님까지 3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다. 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수많은 사부대중이 모여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회를 연다. 지금도 법사 초청 법회와 방생 법회 등 다양한 법회가 열리면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대중이 매우 많다. 이런 노력이 울창한 빌딩숲과 문화 혁명 속에서도 꾃꽃이 중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통교사의 힘이 아닐까 한다.

통교사는 북경에 있는 유일한 비구니 사찰인 동시에 동성구 지정 보호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가을이 되면 통교사의 나지막한 법당 앞에는 감나무에 감들이 익어 가는데 단아하고 소박한 모습이 통교사와 똑닮아 보인다.

또 하나의 사찰을 소개하자면, 베이징 남쪽의 선무(宣武)구에 위치한 법원사이다. 부지 6,700m<sup>2</sup>의 법원사는 1,300여 년 전의 당(唐) 조 때 건설되었다. 법원사는 황실의 명(命)에 의해 건축이 된 사원이다. 이런 이유로 건축양식이 중국 고대 황궁과 매우 유사하다. 천여 년 동안 법원사는 수차례의 복원을 거쳤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명·청(明·清) 때 건물이다.





법원사는 당(唐) 정관(貞觀) 19년(645)에 지어졌으며, 원래 이름은 민충사(閔忠寺)였다. 명·청 때 옹정제(雍正帝)가 법원사란 이름을 하사하여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이다.

법원사는 우리 역사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사찰이다. 잠시 고구려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압잡아 보고 침략을 했다가 패전

을 한 적이 있다. 연개소문의 군사가 고구려를 침략했던 당 태종의 군사를 지금의 베이징 교외까지 쫓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법원사가 있는 자리에서 치열한 교전이 있었고 당나라의 수많은 군사가 죽었다고 한다. 베이징으로 후퇴했던 당 태종은 잠시 안정을 되찾고 나서 목숨을 잃은 군사를 위로하기 위해 절을 지어 '민충사(閔忠寺)'라 이름 붙였다. 전투에 패해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넉을 달래는 제사를 이곳에서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절이 청나라 옹정(雍正)황제 때 법원사(法源寺)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법원사의 중심선상에는 산문과 천왕전, 대웅보전, 민충대, 비로전, 관음전, 장경각 등의 전각이 있다. 동쪽으로는 방장원, 즉 승려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어진 당시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천왕전 내부는 한 부대의 화상과 동으로 주조된 4대 천왕 조형물이 모셔져 있다.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 불상을 비롯해 문수보살, 보현보살상이 모셔져 있는데 명나라(明, 1368년 - 1644년) 초기에 만들어진 귀중한 불상이다. 창하량(淸夏梁)에는 건륭제(乾隆帝)가 친히 쓴 "법해진원(法海真源)"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비로전 내부에는 명대 때 동으로 만들어진 5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중간층은 불상이 사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방불이 있고 위층은 비로자나불이 있다. 비로자나전 뒤에 있는 대비단(大悲壇)은 당, 송, 원, 명,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경문이 진열되어 있다. 또한, 여러 둘 조각 조형물 중에 당나라 감향(感享) 3년에 만들어진 조형물이 가장 진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명대 목조 불상 중 열반상은 길이 10미터로 베이징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와불 형태의 불상이다.

법원사 제일 뒤쪽 2층 건물은 '자단천불전(紫檀千佛殿)'이라고도 하는 '장경루(藏經樓)'이다. 건물 안에는 천(千) 존(尊)의 불상과 많은 불교 문화재들이 소장되어 있고 건물 앞뜰에는 은행나무와 청 왕조 건륭제 때 심은 해당화 나무가 있다. 법원사에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인 1,900여 년 전 동한 시기의 소조 불상도 있다.

법원사 관음전에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천수 천안 관음동상이 있다. 조각이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다. 신비스러운 것은 천수 천안 관음동상의 손부분에서 끊임없이 물방울이 스며져 나와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천수관음의 또 다른 원력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이 천수관음을 친견하려는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모양이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처음 문을 연 불교의 종합 대학 격인 '중국불학원(中國佛學院)'이 있다. 1955년 지어진 중국불학원은 1979년에 '중국불교 도서 문물관'이었다가 1980년 '중국불학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곳은 중국에서 불교 경전과 진귀한 목판본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곳이다. 초기에 산문을 연 사람은 요가조 대사로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18명의 학인을 모집하여 개강했다. 교학 이념은 '知恩報恩'이다. 이 불교학원은 중국 불교의 중심으로, 수많은 승을 배출하였고 중국인의 자긍심으로 남아 있다.

초기의 흑백 사진을 보면 스님들의 긴장한 모습과 순박한 모습이 교차하고 있다. 강의를 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용맹스럽게 수행 정진하는 모습에는 하나의 히트리짐도 없다. 이곳의 수행과 공부 과정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수행법과 함께 경전 해석을 통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뛰어난다.

1990년 중반에는 불학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교실과 도서관을 늘리고 수많은 경전을 보유하여 현대적인 학원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었다. 지금은 많은 경전 해석과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제2의 불교 중흥에 앞장을 서고 있다. 중국에서 불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영향도 클 것이다.

불학원을 졸업하고 법원사 스님으로 남는 일도 있는데, 그들은 역사와 문화의 요람인 법원사에서 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규정대로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는 것을 커다란 부처님의 가파로 여긴다.

법원사의 '정향시모임' 또한 유명하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방문했다가 정향 꽃나무 아래서 시를 읊었다고 한다. 그 뒤 법원사에는 시를 짓는 문풍이 형성되었다. 정향시모임은 법원사의 특색 있는 행사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매년 4월에 진행된다.

법원사의 정향 꽃나무는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품종과 꽃 종류 또한 다양하다. 중국의 자주 정향과 백색 정향 외에도 서양 정향이라는 종류도 있는데 서양 정향은 6백여 년 전 인도네시아의 말루쿠섬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것이다. 정향시모임은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다.

법원사는 해당화와 라일락으로도 유명하다. 라일락꽃이 필 때면 법원사는 온통 라일락 향기로 취해있다고 한다.



김지상 | 만봉스님 문하에서 탱화, 단청사사.

한국인 최초 중국 국립박물관 수복연구원으로 서화수복.

## 존재의 모습은 다르나 본래는 하나

- 불복장 전문가 선진스님 -

현 오 / 사교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절실한 것은, '나'라는 존재를 이미 떠나 있을 때이다.

그리움을 사무치게 하는 것은, 이미 그리움의 대상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을 껴안고 낮 선 동정을 살피러 가는 것이다.

연둣빛 세상을 끌어당겨 파스텔 고운 색감 문질러 놓은 산천을 뒤로하고, 우리는 운문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어느 도심 속을 파고들었다. 높은 집들이 빼곡히 둘러쳐진 그곳엔 옛 시골정취를 그대로 살려놓은 소담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집주인의 돈독한 믿음과 고집스런 예향가의 낭만을 읊리게 하는 곳. 질박한 대문을 밀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유일한 '불복장(佛服裝) 전문가' 이신 선진스님이 계셨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즐겁게 맞이해 주시는 꾸밈없고

소탈하신 성품에 금방 반해 버렸다. 불복장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인연 맺게 되었을까? 우리는 찻물이 채 우러나기도 전에 스님을 향한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90년도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됐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아 양가득 죄(兩家得罪)'를 받고 있나' 싶어 괴로웠었죠. 그때 문득 운문사 강원에서 읽었던 정청구 교수의 「바치는 금강경」이 생각났어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하루에 금강경 독송 일곱 번을 4년 동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언을 써야한다'는몽중가파를 받았어요. 그로부터 '옴 마니 반메훔' 10만장을 서사하기로 원을 세우게 됐죠. 화취(火取)진언, 항마(降魔)진언 등 불복장에 들어가는 여러 진언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철화상으로부터 불복장 의식을 전수받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

온 안계시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반드시 복장의식을 거쳐서 점안의식을 치러야 조각품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중간 과정과 부처님의 광명이 없으면 당장에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요. 이 일이 지극한 정성과 원력, 신심과 공경으로 몸과 마음, 영혼까지 다 쏟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란 걸 일깨워 주시는 가르침이었어요."

찻잔 위로 말갛게 떠오르는 스님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전해져 왔다.

잠시 후, 전시도록을 보여 주셨다. 그 속엔 골동품상에서도 구경하지 못할, 아주 천대해 왔던 우리의 옛 생활용품마다 다리니나 칠보(七寶) 등의 신성 물을 집어넣은 스님의 전시작품이 담겨 있었다. 똥장군과 솔통, 백 년 전의 변기. 이런 것들은 이름만 떠올려도 해학적이다. '그 똥통 속에 부처를 넣어 보면 어떨까?' 하는 파괴적 창조를 추구하셨다는 스님. 부처 없는 곳이 없고 부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관념을 깨뜨려보자는 자성의 소리를 듣고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이루어 내셨다고 한다. 마치 설치예술의 한 장르 같았다. 피기하고 파격적인 이러한 발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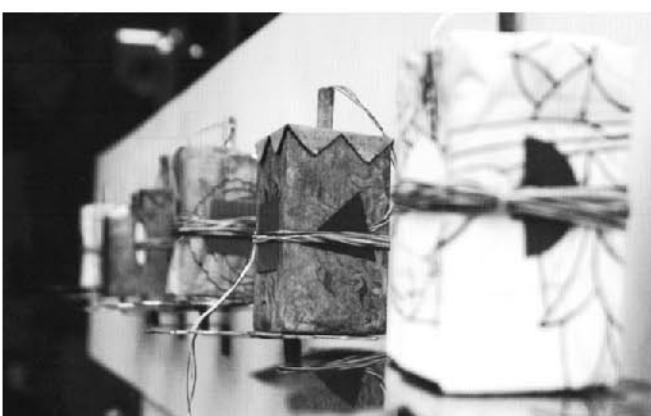
"가장 보수적인 것이 가장 진보적인 것이며,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현대적인 것임을 알리기 위한 방편이죠. 기도의 한 형식과 정진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대중과 소통하길 원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시회 제목을 '동이이전(同而異展)'이라 이름붙인 것도 존재의 모습은 다른 것 같으나 본래는 하나님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승(僧)으로서 해야 할 최선의 일이 아니겠냐며 환하게 웃으셨다.

"부처의 내장인 불복장을 넣어 중생에게 생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見物致知라, 物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불복장의식을

일려주시는 내내 부처님의 진리가 스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한줄기 강물처럼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현대 미술형식에 불교문화를 접목하여 불복장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높이는 계기를 만드신 한국 비구니계의 최초 선구자. '처음'을 열어내시는 스님의 고뇌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스님의 남다른 종교의식과 예술혼이 잔잔한 물결이 되어 뜻 중생으로 하여금 자성을 찾게 하는 파동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내 자신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본다. 나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가르침에 구속되는 왜곡된 선비(東語敎曲士)가 되지 말고 삼라만상이 다 나의 스승임을 알아가길 바래요. 운문사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의 常住說法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스님과 함께한 시간은 무한한 시공간 위에서도 길을 잊지 않도록 오롯이 중심을 잡아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하루의 반나절을 다 여의고 돌아오는 발걸음 위로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역할이 있기 마련이다. 부여 받은 혜택과 그 혜택을 누린 만큼 세상으로 다시 환원해야 할 뜻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서있는 이곳에서부터 한 걸음씩 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겠다. 높으면 높은 대로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 우리는 지금

-『천사들의 제국』을 읽고 -

지오 / 사집과

삶을 떠나는 순간에 새삼스레 깨닫게 되는 바가 있다.

나는 언제나 죽음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어떤 일로 여겼다는 사실 말이다. 어떻게 나는 죽음을 하 나의 전설 같은 것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시련으로 간주하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우리 인간은 별 게 아니다. 우리는 썩어서 또는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천사들의 제국』은 사후세계에 가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사후세계에 가게 된 사람들은 대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한 일 점수가 600점 이상이 되어야만 환생의 사슬에서 벗어나 천사가 될 수 있다. 점수에 미달하는 존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른 모습으로 환생하여 살면서 그 기간에 부족한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야기 속 주인공 ‘미카엘 팽송’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게 된다. 그는 597점으로 아깝게 3점이 부족하여 다른 육신으로 환생하라는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미카엘의 수호천사는 재심을 요구하여 기여이 그를 천사로 환생시킨다. 천사의 역할은 저마다 3명의 인간을 맡아서 그들의 영혼이 바른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에 대한 이해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익숙한 천주교 개념과 동양의 윤회사상과 신화적 개념, 현대적 개념이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유연하게 표현한다. 또한, 작가는 사후세계에 대한 사색의 결과물을 자유로운 인식 확장을 통해 시 · 공간을 초월하여

방대하면서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야기 밑바탕에는 ‘윤회(輪迴)’와 ‘업(業)’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

영계(靈界)와 천국, 인연과 카르마(業)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요소요소 재치 있게 보여준다. 시간을 앞지르고 공간을 뛰어넘는 삼천 대천세계의 여행을, 주인공 미카엘과 함께 떠나보지 않겠는가?

소설 속 삼천 대천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진 않을듯하다. 우리 의식의 광대함과 축 정할 수 없는 시간의 공유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에 공존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나는 죽음이 나의 일임을 안다.

나는 내가 썩어서 먼지로 돌아갈 뿐인 존재임을 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꾸리고 있으며,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정신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고 한다. 습관은 곧 카르마, 내 업(業)이다. 삼천 대천세계를 향하는 내 생각에서 업(카르마)까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이제 명확하다.

다접생래(多劫生來)로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나의 업(業)과 습(習)은 지금의 내 모습일 것이다. 나는 몇 점짜리 삶을 살고 있으며 몇 점짜리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른 업(業), 다른 습(習)으로 만난 우리는 지금 어느 시 · 공간에 있는가. 우리는 모두 소설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장자의 꿈속에 살고 있다. 따스한 봄날, 처음 만난 나비처럼…….

어느 날 장자는 꿈에 나비가 되었다.

날개를 펄럭이며 꽃 사이를 춤처럼 날아다녔다.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장자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불현듯 꿈에서 깨었다.

깨고 보니 자신은 나비가 아니라 장자가 아닌가?

장자는 생각한다. 아까 꿈에 나비가 되었을 때는

나는 내가 장자인지 몰랐다. 지금 꿈에서 깨고 보니

나는 분명히 장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정말 장자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가?

지금의 나는 과연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로 변한 것인가? ☺

천사  
들의  
제국

## 청산이 좋다고 말하지 마시오

- 만허당 법일선사 -

명현 / 사집과

눈발이 세차던 운문령 고개를 어렵게 넘어 첫발을 디딘 날부터 목련 나무에 꽃이 피기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던가! 가슴에 차고 있던 커다란 이름표를 떼고, 행전을 벗고, 이제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가야 할 치문반 후배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니, 더디기만 했던 시간이 훌쩍 일 년을 넘어섰다.

봄이다. 만물의 태동을 다시금 느끼며 신명나게 들녘으로 나갈 준비를 해본다.

딱 요즘때, 출가의 결심을 하고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줄 몰랐던 내게 누군가 권해준 곳이 지리산 대원사이다. 그곳은 어려운 환경과 조건 등 많은 장애를 극복하며 참선 뿐만 아니라, 가람수호 및 염불, 간경, 교학 등 일생동안 기도와 수행을 한시도 놓지 않았던 만허당 법일선사가 계셨던 곳이다. 지리산 풀짜기의 계곡물이 우렁차고 씩씩한 장부의 기량으로 중생의 번뇌 망상을 씻어내듯 바위를 비켜 시원스레 흐르고 있었다. 이런 곳에 한번 들어가면 동구불출(洞口不出)하고 수행하리라.

僧乎莫道青山好 승려들이여! 청산이 좋다고 말하지 마시오

山好如何復出山 산이 좋으면 어찌하여 다시 산을 나가려 하시는가

試看他人吾蹤迹 다른 날 나의 발자취를 한번 지켜 보시오

一入青山更不還 한번 청산에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흐르는 물도 아껴 쓰라.” 하시던 비구니 선지식 법일스님은 1904년 8월 23일 아버지 청풍 김씨, 어머니 전주 전씨의 2남 4녀 중 막딸로 태어났다. 어머니께서 큰 봉황새를 가슴에 품어 안는 꿈을 꾸었다 하여 봉이(鳳伊)라 불리었다.

서울에서 부유하고 개화된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봉이는 성품이 청렴하고 순수했다. 그러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함으로 인하여 여걸(女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일제의 조선탄압이 치성을 떨던 1936년, 나이 서른셋의 법일선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원사 문성(文成)스님의 토굴을 방문하여 잠시 기거하게 되었을 때이다. ‘속세의 살림살이가 출가하여 구도함만 같겠는가.’라는 생각으로 3일 동안 삼매에 들었던 봉이는 결심을 굳혀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고자 출가하게 되었다.

1954년 한국 불교가 왜색불교로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스님은 자신의 안심입명을 위해서 앉아만 있을 수 없다며, 종회의원으로 정화불사에 동침하시어 비구니 승단의 단합과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

1955년 국군의 박격포 사격으로 초토화되어 도량의 혼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가 된 대원사에 주지소임을 맡아 가립 중창 대작불사의 원력을 세우셨다. 마침내 40여 년의 세월동안 4분 정근의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에서, 스님의 대원력은 화염 속에서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올라(火中生蓮) 여법한 비구니 수행도량을 당당히 일으켜 세우셨다.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늘 ‘無’字 화두를 쟁기셨던 법일선사께서는 추운 겨울에도 방을 뜨겁게 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엄동설한에도 장작 세 쪽으로 지리산의 패서운 냉기를 녹여 내셨다고 하니, 스님의 정진력과 검약하고 근면하신 청빈한 삶을 그저 우러러 짐작해 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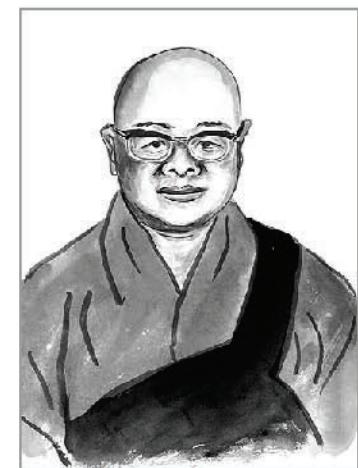
평생을 전국 각지 선원에서 수선안거 용맹정진 하시고, 불사를 하더라도 선방을 먼저 지을 만큼 대중의 호에도 각별하셨던 스님은 1991년 동안거를 며칠 앞둔 음력 10월 10일에 도량석 목탁소리를 들으며 세수 88세, 법랍 55세로 사바세계의 인연을 거두시어 지리산의 한줄기 빛으로 化하시었다.

‘아름다움은 저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난다.’

물질문명이 발달된 현실 속에서도 청빈과 원력, 기도로 평생을 살다 가신 법일선사. 그분의 수행과 삶은 시은(施恩)을 망각하고 살아온 지난날을 절실히 돌아보게 해준다. 소임을 살면서 무심히 흘려보낸 쌀 한 틲과 휴지 한 조각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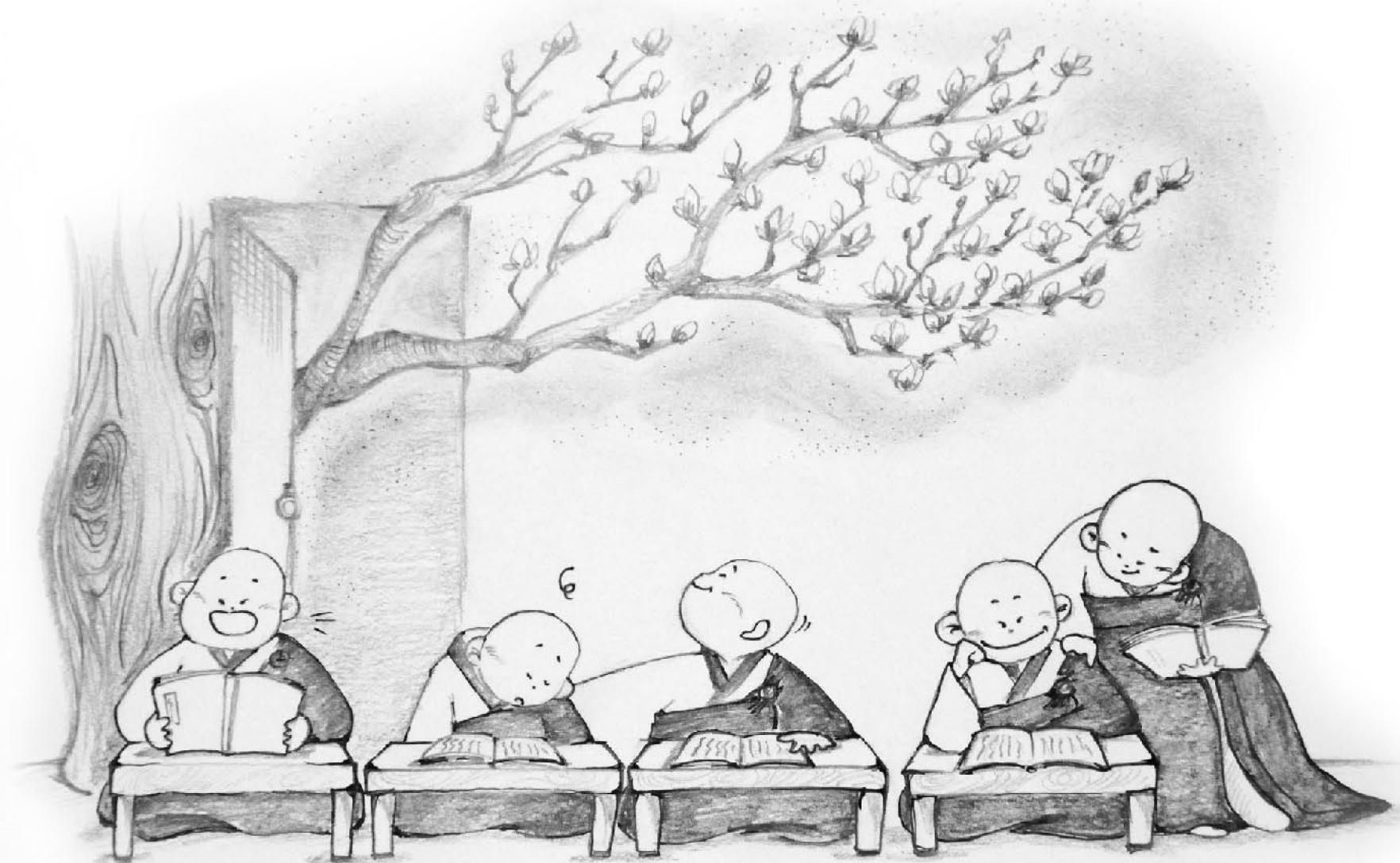
대중에 살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존재성을 잊어버리는 순간일 것이다. 존재의 가벼움으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리라 다짐해본다.

비구니계의 선지식, 만허당 법일선사 처럼 …



## 큰방으로 찾아온 봄

서 주 / 사교과



## 법륜(法輪)과 공양(供養)

和隱子

부처님의 최초의 법륜이 상전(常轉)한다는 것은, 고집멸도 사성제와 팔정도 등의 법문이 늘 삼천 대천세계와 허공(虛空) 법계(法界)에 구르고 있음을 말한다. 한 번 더 깊게 음미하여 보면 법륜(法輪)이란 사성제와 팔정도 등의 법문에 의하여 지수(地水), 화풍(火風), 공의(空意)의 육대(六天)가 하나로 조화롭게 승강(昇降)교류(交流)하여 지륜(地輪), 수륜(水輪), 화륜(火輪), 풍륜(風輪)이 허공(虛空)에 의지하여 여래(如來)의 여러 대지혜륜(大智慧輪)으로 삼천 대천세계가 별려지고 장엄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찬탄함이니, 크게는 무진허공법계에 여래(如來)의 여러 정법륜(淨法輪), 묘법륜(妙法輪) 등등이 상전(常轉)함이다.

우리 중생(衆生)에게 법륜(法輪)이란, 지대(地大)와 서로 공감하여 하나로 움동하는 요가의 물리드라 차크라(해저륜), 수대(水大)와 서로 공감하여 하나로 움동하는 스바디스타나 차크라(생식륜), 화대(火大)와 서로 공감하여 움동하는 아나하타 차크라(심흉륜), 풍대(風大)에 수화(水火)가 하나로 되어 서로 공감하여 하나로 움동하는 마니프라 차크라(체

륜), 공대(空大)와 서로 공감하여 움동하는 비슈다 차크라(인후륜), 의대(意大)와 서로 공감하여 하나로 움동하는 아즈나 차크라(미심륜) 등이 하나로 승강 교류하여 사하스라 차크라(정륜)에 천백억 연꽃이 피어나야 여래의 법륜이 우리 중생에게서 은현(隱現) 자재(自在)하심이다.

우리 중생은 하나의 작은 여래(如來)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몸의 세포 수는 온하의 태양계 수인 십조 개와 같으며 하나로 조화롭게 생명현상을 이루고 있다. 십조 개의 태양계가 하나의 온하로 친란하게 광휘하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십조 개가 하나의 친란한 광휘로 생명현상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과 물로 되어 있다. 우리 몸의 98퍼센트가 물이다. 혈액도 실제는 물의 성분이다. 흐르는 물은 죽지 아니한다. 우리 몸의 물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잘 순환되려면 지륜(地輪)과 수륜(水輪)이 지대(地大)와 수대(水大)가 서로 공감(共感)하여 움동(律動)하여야 한다. 서로 공감하여 움동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크신 어머니이신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認識)이다. 사랑과 존중이다. 지구도 하나의 존귀하신 생령체이시다. 육체 생명의 어머니이신 지구행성, 나아가서는 정신생명의 어머니이신 온하가 대지(大地)의 여신(女神)이시다. 크나큰 대지의 여신이 바로 자비와 현묘한 광휘가 은현 자재하심이 크신 여래(如來)이시다.

부처님 법문의 기초적 근간이 되는 팔정도의 법륜에 의하여 우리 중생의 몸과 마음에 순수한 에너지인 정(精)과 순수한 의식인 신(神)이 하나로 되어 승강 교류하는 움동이 우리 중생의 법륜이다. 진정한 법륜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늘 새롭게 정진하여 무량공덕을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함양할 것이다.

여래의 여러 법륜에 의하여 우리 중생의 여러 차크라가 하나로 조화롭게 승강교류 움동하는 법륜이 상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수행할 수 있으며, 어찌 육바리밀을 행하여 깨닫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서는 십바리밀을 행하며 일체 종지를 이루고 무량 공덕을 쌓는 보살마하살이 될 수 있으리오.

법륜이란 육대(六天)가 하나로 움동하는 광휘로 수습나를 통하여 춘다리가 각성되어 현현하는 진리의 회오리이다.

진정한 법륜을 깨닫지 못하면 진흙 소(泥牛)는 대력(大力) 백우(白牛)가 될 수 없다.

현묘한 법륜을 행하지 못하면 동진주(童真住)를 함양할 수 없다. 석녀(石女)가 동자(童子)를 희임(懷妊)할 수 없다.

동진주(童真住)를 체험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무비공(無鼻孔)을 타파하리요.

소 타고 소 찾는 도리는 말뿐인 참구(參究)네!

백우(白牛) 탄 동자(童子)를 모르는데 어찌 원광(圓光)의 법신(法身)을 나누리요.

화신(火神) 동자(童子)가 불을 찾는구나!

화온자(和隱子) 님은 재가 수행자입니다.

어찌 참구하리요.

조계의 역류(逆流)를 어찌 알며,  
황하가 서류(西流)하여 곤륜(崑崙) 정(頂)에  
다다름을 알리요.

공양(供養)에는 예불(禮佛)드리는 외공양(外供養)과 내공양(內供養)이 있다.

도태(道胎)를 장양(長養)하는 동진주(童真住)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내공양(內供養)을 깨달을 수가 없다. 현묘한 법륜의 도리를 행하지 못하면 내공양(內供養)은 공염불(空念佛)이다. 내공양(內供養)은 무량수 일체 여래의 일체 종지와 일체 법문과 일체 삼마디(samādhi, 三昧)와 일체 다라니와 자성의 심의식(心意識)을 하나로 하여 여래의 광휘로 거듭나게 하는 관법이다.

일체 여래의 진정한 외공양(外供養)은 내공양(內供養)이다.

공양(供養)이란 일체 여래의 광대무량한 여러 지혜의 바다가 나의 지혜와 하나 되어 함께 함양됨이다.

참선을 할 때 몸이 고요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십조 개이듯이 우리 온하의 태양계도 십조 개이니 서로 공감하여 하나로 움동하여 광대 무량한 광휘로 회오리치며, 마음이 그윽하면 광대 무량한 무진 허공법계와 우리 마음이 둘이 아니니 대 환희(大歡喜) 삼마디(samādhi, 三昧)라. ●

##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큰스님을 뵙고 -

상현 / 대교과

운문사의 어린이법회에 참석하던 한 아이가 항암치료를 받던 중 한 쪽 눈이 실명되는 일을 당했다. 암이 모두 치료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던 중 도반 스님으로부터 얼마 전 군종교구장 소임을 마치고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일면 큰스님을 찾아뵙자는 반가운 말을 들었다. 선지식 인연이 빈약한 우리에게, 도반 스님의 은사 스님께서 포교를 크게 하는 스님을 찾아뵈면 좋으리라 말씀해 주신 덕분이었다. 남양주에 있는 불암사에 도착하니 큰스님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주셨다. “뭐가 필요해요?” 라며 인터뷰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스님의 세심한 배려에 우리들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말 그대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크게 말하면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뇌사자의 경우 심장이나 신장, 폐, 각막 같은 장기 9가지를 상대방에게 주고 자기는 떠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간이나 신장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죽고 나서 시신 기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거리나 대학교에서 헌혈캠페인도 하고, 치료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



비 지원도 합니다. 1994년에 법장스님이 설립하셨고, 법장스님 돌아가시고 제가 맡았어요. 개신교에서는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천주교에서는 한마음 한 몸 운동본부가 있어요. 운문사 학인 스님들도 하면 좋습니다. 스님들이 나서면 재가신자들이 좀 더 쉽게 동참할 수 있어요. 요번에 “스님들도 하자.” 해서 혜국 큰스님도 동참하셨고 총무원 호법부에 있는 스님들도 모두 동참하셨어요.

장기기증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부모에게 “당신 아들의 장기가 9명을 살리니 9명의 자식을 두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지수화풍이 흩어져 버리는데 그 장기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니 좋은 일이잖아요. 유교사상 때문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경우, 운동경기를 할 때 남한테 족본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어요. 그런데 일본 유학 가려고 공부를 하던 중 계속 피곤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1999년에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2개월을 못 넘긴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다행히 2000년도에 22살 뇌사자의 간을 받아서 이식수술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장기 기증 덕분에 지금의 내 삶이 있게 된 거죠.

외국에 연계하고 있는 기관이나 본보기가 되는 곳이 있나요?

태국의 ‘담마까야’라는 절과 연계를 하고 있어서 그곳의 스님들이 여기 불암사에 오기도 해요. 본보기가 되는 곳은 대만의 자재정사나 불광산사, 종태산사입니다. 자재정사의 경우는 병원을 크게 지었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넘어졌을 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자원봉사단을 파견했을 정도로 매우 조

직적이에요.

군포교,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활동의 경험이 많으신데 포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스님들에게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출가를 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100가지 있어도 99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러더라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하고 싶은 걸 해야 미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강원 다닐 때 부처님 계율 60% 지키고 40%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고 정했어요. 해봐야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인정이 되니까요.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외에는 다 해 보는 게 좋아요. 내 나름대로 주관을 세워야 하잖아요. 계율에는 첫 번째가 불살생인데, 나에게는 첫 번째가 사상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도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고 사상을 정립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봐요. 잘났다는 것도 별 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시대에 맞게 하고 싶은 걸 하는 능력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사회에 나가 활동해 보면 불교신자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불교 신도가 천 이백만이라고 하지만 불교 신도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해요. 젊은 사람들은 불교 신도가 없고 남자분들은 집 사람이 나간다고 하지, 자기가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스파치학원을 다녀왔어요. 스님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학원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50명 정도



는 기독교인이에요. 전도사, 집사,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스님은 물론 나 혼자뿐이고 그 이외에는 일 반인이었어요. 스피치학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도 다 그래요. 목사는 일년에 배출되는 숫자가 5천 명 정도 되는데 사미, 사미니계 받은 스님은 일 년에 3백 명이나 될까 싶어요. 우리는 숫자로도 안 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안되고… 빼겨리게 안해요. ‘내가 그거 하려 중 됐나.’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걱 정되요. 젊은 스님들한테 희망을 걸 수 있는데… 지금 학인 스님들이야 물론 신심내서 들어왔겠지만, 앞으로 뭐 할 건가 한번 계획해보고, 막연하게 참선하겠다고 안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 “다른 거 할 것도 없는데 선방이나 갈까?”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꺼면 안가는 게 좋아요. 참선하려면 진짜 경전에서 보듯이 대근기, 대분심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자기 능력껏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사회에서 포교하는 데는 다른 생각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저희도 강원에서 외부특강을 통해서 포교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만큼 기본적인 공부가 됐는지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채로 사회에 나가서 포교를 하면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에 누가 되는 건 아닙지,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포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강원에 있을 때 은사스님이 치문 배우고 나면 “치문 배웠으니까 됐다, 이제 선방와라.” 사집 배우고 나면 “사집 배웠으니까 됐다, 선방와라.” 계속 나만 만나면 그러셨어요. 근데 나는 안간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참선해서 도인 될 생각은 없습니다. 행정의 도인 한 번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사스님이 “저놈 망할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스님, 안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행정을 잘해서 불교를 어느 위치에 올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복지관을 하고 있어서 스님을 구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없어요. 나는 스님들이

공부하고 참선하고 도인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복지사를 하던지, 학문을 하던지, 책을 쓸 사람은 책을 쓰던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스님들도 자기의 타고난 기질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빼겨리게 안해요. 모든 것을 ‘한국 불교,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은사 스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은사 스님은 아주 무서운 스님이에요. 선방에서 스님들이 50명 방부를 들여도 10명, 20명 정도는 쫓겨날 정도로 무서우셨어요. 한번은 내가 16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스님이 돈을 얼마 주시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쭉 적어주셨어요. 시장에 다녀와서 스님한테 물건이랑 잔돈을 드리니까 스님이 계산을 해 보시더니 100원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했냐고 물으시길래 눈깔사탕 사먹었다고 했더니 스님이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시은(施恩)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있느냐고. 너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중노릇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서 쫓아냈어요. 그때 추웠는데 밖에서 별별 떨면서 한 시간쯤 끓어앉아 있다가 문을 여니까 “너, 이놈아! 어떻게 그걸 사탕 사 먹을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니까 “너는 그래 가지고는 중노릇할 자격 없다. 중노릇 다시 하려면 3천 배를 해라!” 그러셔서 3천 배 하고 다시 중노릇 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이셨어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까만 비누를 썼었는데 그 비누로 뺨래를 하고 물을 버렸는데 은사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걸 왜 버리나?” 하시길래 “아니, 뺨래한 물인데 버려야죠.” 그랬더니 “그걸 세숫대야에 담아 놨다가 다음에 걸레 뺨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엇이든 아끼는 분이셨어

요. 그때는 내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러실까?’ 하고 섭섭했죠. 근데 그 뒤로 그렇게 은사스님께 배운 게 다 중노릇하는 데 힘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있어도 기본이 돼야 해요. 예를 들어, 태권도를 해도 어떤 자세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가장 잘 공격할 수 있는지 기본자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기본적으로 마음부터 먼저 정립해야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중물이 들어야죠. 나는 해인사 강원 다니면서 중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자세를 정립했어요. 강원 잘 졸업하고, 계율 잘 지켜도 끝까지 중노릇 잘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끝까지 중노릇 잘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정립해놔야 되요. 야구선수가 연습할 때 한번 던지면 연습이 되는데 왜 자꾸 하겠어요. 커브면 커브, 슬라이드면 슬라이드 계속 던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제8아뢰야식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중에도 되거든요. 우리도 평상시에 수없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슴 속에 심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자다가도 난 어떤 위치에 가도 중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뭘 안 해봤겠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중노릇해야 한다. 다음 생에도 중노릇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상을 정립하고 그 길에 대해 확신이 들었으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일면 큰 스님의 말씀이 나의 수행을 되돌아보게 했다. 부처되는 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혹시나 자신을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드는 건 아닐까? 팔만사 천 부처님 법문 속에서 허우적대는 나에게 또 다른 길잡이가 되어주신 큰스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한층 더 풍요로워지는 봄날이다. ●

## 만 가지 선행이 모두 중도로 돌아간다

-『萬善同歸集』, 영명 연수선사(永明 延壽禪師, 904~975) -

편집부

菩提無發而發 佛道無求而求  
보리무발이발 불도무구이구

妙用無行而行 眞智無作而作  
묘용무행이행 진지무작이작

興悲悟其同體 行慈深入無緣  
흥비오기동체 행자심입무연

無所捨而行檀 無所持而具戒  
무소사이행단 무소지이구계

修進了無所起 習忍達無所傷  
수진료무소기 습인달무소상

般若悟境無生 禪定知心無住  
반야오경무생 선정지심무주

鑒無身而具相 證無說而談詮  
감무신이구상 종무설이담전

建立水月道場 莊嚴性空世界  
건립수월도량 장엄성공세계

보리심은 발함이 없이 빌하고  
불도는 구함이 없이 구해야 한다.

미묘한 작용은 행함이 없이 행하고  
참 지혜는 지음이 없이 지어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일으켜 모두가 한 몸임을 깨달아야 하고  
사랑을 행함에는 인연 없는 사람에게까지 깊이 이르려야 한다.

베푸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고  
가지는 바 없이 계행을 지녀야 한다.

정진을 행하되 마음에 일어나는 바가 없어야 하고,  
인욕을 익히더라도 상처 받는 바 없이 체달해야 한다.

반야지혜는 경계가 생멸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며  
선정은 마음이 본래로 머물이 없음을 아는 일이다.

몸이 없음을 알고 상호를 잘 갖추며  
설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법을 설해야 한다.

물에 비친 달그림자인 도량을 건립하며  
본질이 공한 세계를 장엄하라.

羅列幻化供具 供養影響如來  
나열환화공구 공양영향여래

懺悔罪性本空 勸請法身常住  
참회죄성본공 권청법신상주

廻向了無所得 隨喜福等眞如  
회향료무소득 수회복등진여

讚歎彼我虛玄 發願能所平等  
찬탄피아허현 발원능소평등

禮拜影現法會 行道足躡虛空  
예배영현법회 행도족섭허공

焚香妙達無生 詠經深通實相  
분향묘달무생 송경심통실상

散華顯諸無著 彈指以表去塵  
산화현제무착 탄지이표거진

施爲谷響度門 修習空華萬行  
시위곡향도문 수습공화만행

深入緣生性海 常遊如幻法門  
심입연생성해 상유여환법문

誓斷無染塵勞 願生惟心淨土  
서단무염진로 원생유심정토

履踐實際理地 出入無得觀門  
이천실제이지 출입무득관문

降伏鏡像魔軍 大作夢中佛事  
항복경상마군 대작몽중불사

廣度如化含識 同證寂滅菩提  
광도여화합식 동증적멸보리

환영幻影인 공양거리를 나열하여  
그럼자 메아리인 여래에게 공양 올리라.

죄의 본성이 공한 것을 참회하고  
법신은 항상 머무는 데 머물기를 청하라.

철저히 얻을 바 없음에 회항하고  
복은 진여와 같음을 따라 기뻐하라.

피차가 텅 비어 없음을 찬탄하고  
주객이 평등함을 발원하라.

그럼자처럼 나타난 법회에 예배하고  
길을 걸되 발은 허공에 두어라.

향을 사르되 생멸이 없음을 깊이 통달하고  
경을 읽되 법의 실상을 깊이 깨달으라.

꽃을 올리는 것은 모든 것에 집착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손가락을 통기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는 것을 나타낸다.

메아리와 같은 덕목들을 행하고  
허공 꽃과 같은 육도만행을 닦는다.

인연으로 생멸하는 성품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환상과 같은 법의 문에서 항상 노닌다.

본래로 물들 것이 없는 번뇌 끊기를 명세하고  
유심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한다.

실제의 진리 위를 걸어 다니고  
얻을 것이 없는 관조의 문을 출입한다.

거울 속의 마군들을 항복받고  
꿈속의 불사를 크게 일으키며

환화와 같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적멸의 보리를 다 함께 증득하리라. ●



##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염주

청전 스님

필자는 어디를 가나 또 내 방안에서도 늘 목에 염주를 걸고 산다. 이 습관은 출가해서 행자 때부터 익혀온 나의 모습이다. 행자시절 염주를 걸고 다니는 나에게 더러 스님들이 하는 말씀이란 “저 행자는 벌써 큰스님 흉내 낸다.”라는 것이었다. 갓 스님이 되어서는 여러 선객 스님들로부터 “수좌가 염주를 걸고 다니다니 당장 벗어 버려라.”라는 질책도 받았다. 그러나 필자는 매일 절을 할 때나 기도하며 명상 할 때 어느 곳에서도 염주와 함께 해왔다. 지금 쓰는 이 염주는 사용한 지 5~6년이 되어 간다. 늘 손으로 만지며 잠잘 때 외엔 몸에서 떠나지 않기에 고운 색깔이며 반질반질 윤이 나서 보기 좋다. 그렇다고 재료가 값비싼 외국산이나 특별히 값나가는 무엇으로 만든 것도 아닌 우리나라의 율무 염주다.

처음 인도로 공부를 떠날 때 나름대로 한국 중, 송광사 중이라는 자부심으로 송광사 경내에서 자라는 율무를 따서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써 왔다. 15년 정도 목에 걸고 쓰다 보니 색깔이 보통 예쁜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었다.

성산 카일라스를 도보 순례하면서 또 인도불교 성지는 물론 어떤 나라의 불교 유적지에서도 늘 함

께 했다. 그러다 보니 티베트의 많은 큰스님들의 가피를 받은 염주가 되었다. 달라이 라마로부터 까르마파, 사까공마 린포체, 민돌링 린포체 등 티베트 불교 네 종파의 수장 스님들의 축복의식(가피)을 받았다. 지금은 내 방안의 조그만 불단에 정갈히 모셔두고 있다.

그러던 중 5년 전 한 가정집에서 인연이 된 유후무 염주가 지금 늘 목에 걸는 염주다. 그냥 벽에 걸어둔 지가 이미 5년이나 되었단다. 사연이 있는 염주다.

삼 남매의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집의 막둥이 아들과 인연이 된 염주다. 아이가 세살 때 해인사의 한 암자에 갔는데 한 노비구니 스님께서 아이에게 염주를 걸어주며 때가 되면 누군가 이 염주를 쓰게 될 거라며 아기 잘 키우라는 부탁을 하셨단다. 인연인지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인도를 방문했다. 달라이 라마의 법문을 듣기 위해 온 것이 필자와 인연이 되었다. 법회가 끝나가면서 아이는 달라이 라마로부터 티베트 불명을 받는 축복을 받기도 했다. 이름은 텐진편가, 즉 “아

난”이란 티베트식 불명이다. 아이 엄마는 훗날 아이가 출가를 한다면 필자의 상좌로 하겠다는 언약도 했다.

이런 인연이 되어 필자가 한국에 나왔을 때 그 집을 방문 하였는데, 눈에 띈 염주가 바로 지금 늘 목에 걸고 다니는 염주다. 이 염주를 만드신 노스님은 정행(正行)이란 스님으로 1902년에 태어나 2000년에 99세의 세수로 입적하신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임종 전에 아름답고 멋진 시 한수를 남기신 것도 알았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감이여

如是來 如是去兮

백년의 생애가 한 순간이로다

百年生涯 刹那間

만리 하늘은 늘 한 빛이요

萬里長天 一様色

청산은 그대론데 흰 구름만 흐르네

青山不動 白雲流

이처럼 훌륭한 스님, 청정한 스님, 공부가 크신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염주를 필자가 쓰고 있으니 얼마나 복 받은 일인가.

사실 필자는 인도에서, 인도 보리수나무 열매로 염주를 직접 만든다. 질긴 실을 대만에서 공급 받아 일일이 내 손으로 살하게 쿠어 만든다. 더러 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하다.

우리 대승권의 모든 불교에서는 신앙의 방편으로 염주를 사용한다.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상의 한 손에는 백팔염주를 들고 계시며, 티베트의 사비(四臂)관음보살도 염주를 들고 있다.

필자는 티베트 망명 정부 20년 세월에서 날마다 티베트 사람이나 좀 떨어진 라닥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삶이 이어진다. 그들의 늘 편안하고 행복한 얼

굴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 조국 한국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자. 이토록 풍요와 편리 속에서도 문명의 첨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얼굴 모습은 실망스럽다. 행복하고 차분한 마음 편한 평화로운 얼굴이 아닌 짜증스럽고 굳어 있는 얼굴 모습인 것이다. 왜 그럴까? 우선 모두가 너무 바빠 산다. 그놈의 경제란 이름으로 어느 누가 생활 속에서 염주를 넘기며 차분한 자기 신앙의 실천을 이루겠는가. 욕망의 경제, 돈 벌이의 다급한 생각, 정직이 없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마음에 평화와 행복은 없다. 설령 그 경제란 이름의 욕망을 이루었다 해도 행복과는 멀다. 실제로 우리 부처님의 한 말씀에도 “욕망을 성취한 그대여, 불행하여라. 왜? 우리 앞에 또 다른 더 큰 욕망이 기다리니까.”라고 하셨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가끔씩 인도에서 한국에 들어와,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 모습이 변해 감을 볼 때마다 미래의 어두운 결과를 보는 듯하다. 지금 정말 세상은 칠혹처럼 어둡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도덕률이나 기본 양식마저도 무시되어 버린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불자에겐 희망이 있어 안심이다. 이 어둠을 없앨 빛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法)인 것이다. 이 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남아 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노랗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염주를 목에 걸고 있다. 어쩌면 내 삶이 끝날 때까지도 필자는 늘 염주를 지닐 것이다. 또 기도하며 염불과 진언을 할 때는 이 염주를 굴릴 것이다. 이로 인해 신심이 이어지고 청정한 부처님 제자로서 남을 것임을 알아차린다. 우리 불자 모두가 불자의 상징으로서 예쁜 염주 하나씩을 항상 몸에 지니기를 바란다.

청전(淸典)스님은 1977년 송광사로 출가하여 제방천원에서 정진 중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북인도 다람살라로 건너가 달라이 라마곁에서 22년째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번역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람림)』,『성 천수 천안 십일면 관세음보살 판정예식집』,『입보리행론』,

저서 :『달라이 라마와 함께 지난 20년』,『나는 걷는다! 봇다와 함께』.

## 첫 걸 음

덕념 / 삼니파

세존께선 출가하고  
6년 고행 거쳐  
보리수 아래 정좌하고 나서  
샛별 보고 깨달아 아셨다 했지요.

녹야원에서 첫 설법하고  
45년 동안 맨발로  
쿠시나가라 쌍수 아래 누울 때까지  
걸식하며 법을 전하셨다 했지요.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밟겠다고 서원한  
첫 걸음,  
여기 운문사에서 시작하리라 다짐했지요.

그것은  
배불리 먹기 위함도 아니요,  
편안하고 따뜻이 입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잊고자 함이지요.

모든 생명을 일깨우는 새벽 예불에선  
부처님의 자비를,  
경을 보는 동안에는  
참 주인이 되는 지혜를,  
대중이 하나 되는 울력을 할 때는  
승가의 참모습을 익힐 수 있기를 발원하나니

운문의 수호 대중들이시여  
지금 시작하는 초심자를 지켜주소서. ☺

## 매 순 간 이 공 부 순 간

보각 / 삼니파

‘두근두근 ……’

처음 출가하겠다고 마음먹고 머리 깎기 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기차에 올랐던 그때의 심정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했다. 그래도 봄을 알리는 따사로운 햇볕의 인사는 나에게 강원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시금 새기게 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 있었기에 출가를 결심한 이상, 나는 운문사 승가대학 4년 동안의 생활을 앞으로 내 수행에 필요한 가장 튼튼한 주춧돌로 만들 것이다. 그렇기에 강원의 선택도 쉽지만은 않았다. 무엇보다 운문사를 선택한 큰 이유는, 도량이 넓고 교육환경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대중을 이루는 학인 스님들이 가장 많이 모여 생활한다는 데 있었다.

불교의 핵심은 “마음”이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역 경계 속에서의 마음 변화는 더욱 확연해진다. 그 마음을 밝히기 위해 이곳을 마음공부의 새로운 장(場)으로 삼아 “참나”를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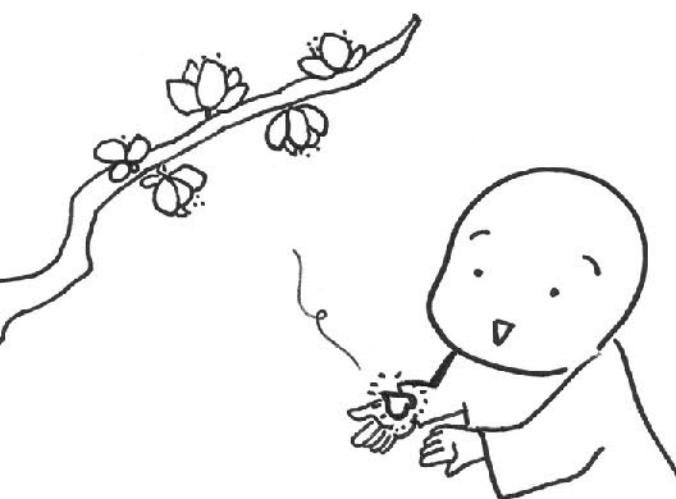
운문사에 처음 방부 들이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예불 시간이었다. 학인 스님들이 꽉 메운 대웅전 안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예불 음성, “지심귀명례….” 그 순간만큼은 여렷이 아니고 하나였다. 그 속에서 나 또한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환희심이 났다.

랫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신발이며 흐트러짐 없이 일렬로 걸려 있는 가사, 장삼. 매번 어떤 일을 하든지 깔끔하게 정리 정돈해서 뒷마무리하는 것 등. 수행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행해야 함을 말없이 일깨워 주는 모습들이었다. 이런 일상은 현재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한다. 운문사에서 5분은 1시간처럼 쓸 수 있다는 말도 실감 난다. 그만큼 1분 1초의 자투리 시간조차 일차기 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허비했던 귀중한 시간에 대해 저절로 참회가 된다.

매 순간이 공부 순간이며 매 장소가 공부 장소임을 잊지 말자. 치문 첫 철이 적응하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바쁜 순간에도 화두를 놓지 않으며 근본 물음을 침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강원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자세가 아닐까? 이제 여기, 운문의 문을 활기차게 열고자 한다. ☺

## 처음 마음으로 ‘下心’ 하며

능 오 / 사집과



눈을 감고 깊게 숨 한번 들이 쉬니, 벌써 사집이다. 목련나무에 봄 소식 가득 안고 맛힌 몽우리도 예뻐 보이고 햌스레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이 조금은 여유가 생긴 모양이다.

출가 전 나는 절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다. 스님들의 법문은 들을 때마다 절절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생에 닦지 아니하면 어느 생에 닦겠는가.”라는 큰스님의 법문은 내 삶에 큰 반전을 가져왔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얼마나 남았을지도 모르는 인생의 순간에서 무엇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항상 과거와 미래에 얹매어 사느라 현재에 충실하지 못했던 나였기에 그러한 큰스님의 법문은 가슴 깊이 각인되었고, 이내 발심하여 입산을 하게 되었다.

시작이 빙이라고는 하나 익숙지 않은 절집 생활은 들어서면서부터 가지가지 사건 사고와 계속되는 실수의 연속이었다. 소심하기 그지없는 나에게 행자 시절은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모든 추억들이 나에게 작은 미소로 돌아오고, 때때로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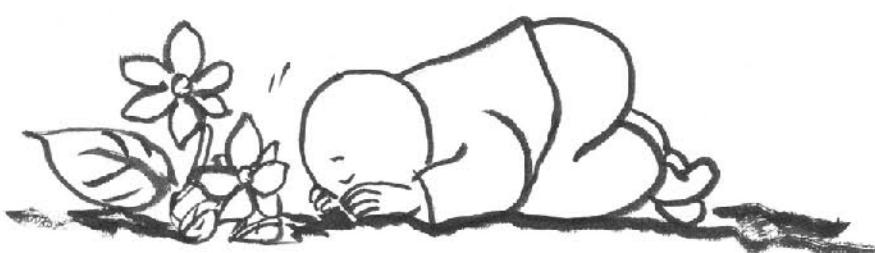
힘겨운 전쟁을 치르는 것만 같았던 치문을 보내고, 사집이 되어 16전(十六殿) 부전 소임을 맡게 되었다. 초심의 경건했던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드리다 보니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기도드렸던 날이 아련히 떠올랐다.

삭발염의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행자 시절의 일이다. 부전 소임을 맡고 계셨던 사숙님께서 “오늘은 능오 행자님이 창불해요.”라고 하셨다. “잘 못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을 앞세워 오분항례를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설렘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실어 높은 소프라노를 자랑하며 선창을 했다. 그러나 잠시 후, 주위가 조용하고 싸늘해졌다. 사숙님께선 벌개진 얼굴과 함께 “풉”하고 웃음을 쏟아 내셨다. 그리곤 이내 여섯 명의 행자님들이 악속이나 한 듯이 모두 한바탕 웃기 시작했다. 혼자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웃음바다는 잠잠해지질 않았고, 10여 분을 넘게 예불을 드리지 못했다. 모두 숨 넘어가게 웃으니 나 또한 덩달아 웃고 말았다.

기도가 끝난 후에 사숙님께선 조용히 날 부르셨다. 너무 높은 음으로 시작된 예불에 모두 당황하였으니 다음에는 조금 낮은 음으로 지극하게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창불은 계속 능오 행자님이 해요.”라는 말씀을 남기며 숙제를 안겨 주셨다. 돌아선 사숙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어찌나 창피하던지. ‘제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흐른 시간만큼이나 나름대로 염불에 익숙해져 갈 무렵이었다. 나에게도 부전 소임이 주어졌다. ‘초심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원을 세우며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신참 행자님의 첫 창불 하는 날이 되었다. 조용한 가운데, 그 경건함을 단번에 잊어가는 선창이 시작되었다. 음치에다 박치를 겸하고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높은음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이 확 드는 순간이었다. 웃음을 참기 위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곧 눈물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 반, 웃음 반으로 예불은 지연되었고, 순간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조금 익어진 생활이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 것이다. 덕분에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다. 나의 행주좌와가 모든 이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되돌아보며 가슴에 ‘下心’이란 두 글자를 새겨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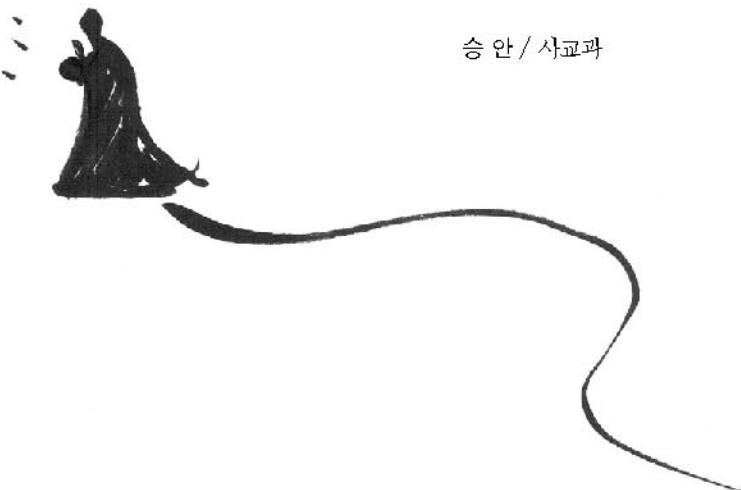
“매서운 추위가 한번 빼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코를 치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라는 황벽 희운 선사의 말씀처럼, 힘겹게 행자 시절과 치문 시절을 보내고 사집을 맞이한 지금! 지난날의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잊지 않고, 항상 처음 마음으로 “下心” 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해 본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뒷모습을 보는 이들이 모두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발원하며…….





## 가슴 깊이 당신을 불러봅니다

승 안 / 사교과



부처님 계신 곳이 어디인가. 지금 그대가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자님들의 염불 소리가 새벽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간절함이 나의 마음 속 깊숙이 울려 퍼진다.

지난 겨울방학, 나는 법당 부전 소임을 계기로 염불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뿐만 아니라 49재나 천도재에 동참하게 되면 어느 사이 신심이 충만해지고 때론 눈물까지 나며 숙연해지곤 했다. 그래서인지 지극하고 간절한 염불 소리를 들을 때면 ‘나도 저렇게 염불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부러운 마음이 더해지곤 한다. 그 어떠한 장황한 말보다도 가슴 가득 메아리치는 환희심! 이 또한 중생제도가 아니겠는가!

내가 사는 곳은 대중이 모여 있는 선방인지라 염불할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염불도 자꾸 해봐야 느는 것인데 직접 해볼 기회가 없으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

이라. 생각으로 천만 번 하는 것이 한 번 행(行)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했잖은가. 항상 듣기만 하는 염불보다는 직접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아는 인연의 도움으로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다. 잘하지 못해서 걱정은 되었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리란 생각으로 한번 부딪쳐보고자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새벽이 되면 빌딩 숲 사이로 저 멀리 자동차 불빛이 지나가는 큰 길을 바라보며 도량석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지옥 중생을 위해 아침 첫송을 했다. 예불을 모시고 관음 정근을 하면서 보잘것없는 나의 염불 소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 나의 염불 또한 그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감동으로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지극함이 사무친던 어느 날의 일이다. 법당 안에 불자님들이 가득히 앉아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천수경을 시작했다. 그 어떤 염불보다도 정성스런 염불이 최고라 생각하며, 떨리는 목소리에 간절함을 담아 허공에 띄워 보냈다. 이십전십 이었을까? 불자님들 또한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함께 하는 동안 어느덧 염불 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져 그 웅장함이 온 우주에 전해지는 듯 했다. 걱정스러웠던 나의 마음은 흔적을 잊었고, 그렇게 공존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너무나도 행복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예불하고 기도드리던 날들이 보름쯤 지나갔을 때였다. 조심스럽기만 했던 나의 마음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렵게도 그 여유는 나의 도량석이 돌림 노래가 되던 날에 참회가 되어 돌아왔다. 실수로 기득한 도량석을 마치고 보니 주지스님께서 조용히 앉아 계셨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스님의 모습이, 그 침묵이 나에게는 더 큰 경책으로 다가왔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 했는데 그 며칠 사이 방심하니!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나태해진 내 마음은 잠깐 사이에 염불하는 정성마저 흘러 놓았던 것이다. 처음 정성스레 목탁을 들고 염불을 했던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을 언제나 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설렘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한 달간의 여정은 나에게 크고도 작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진정 누군가의 가슴에 사무치는 염불은 그 무엇보다도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이번 염불수행을 계기로 언제나 한결같은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본사 석가모니불께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하고 예배할 것을 다짐하며, 보잘것없는 육근의 음성이 아닌 진실한 마음의 염불로써 두 손 모아 가슴 깊이 당신을 불러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 기도가 준 선물

혜민 / 대교파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고 순하게 가져라.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국락도 만든다.  
그러니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장아합 반나원경〉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 또 소소하게 겪게 되는 일들이 지나고 보면 나의 삶 혹은 삶의 자세를 바꾸어 놓기도 하고, 일상에서 깨어 있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한다.

출가 전, 빛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꽃비가 내리던 봄, 그저 난 호기심 많아 들여다니기 좋아하는 집안의 철부지였다. 그날도 외출하려는 나에게 큰언니가 말했다. “막내야! 이 책 읽으면 좋은 일이 많아진대. 같이 읽어볼래?” 그러면서 건네 준 것은 「자비도량참법」이라는 두꺼운 책이었다. 그 책을 받아들고는 정말 열심히 읽었다.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좌복에 불이고 창문을 열고 눈을 비벼가며 출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는 날에도 꼭 정해 놓은 분량을 다 읽고 나서야 잠을 청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읽었던 날이 백일이 되었다. 이왕 시작한 것 좀 더 해보라는 격려에 이백일이 되고, 다시 삼백일 회향을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대견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삼백일 회향을 마치고 나니, 나의 가슴 속에 장미꽃 같은 환희로 움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하루 밥 세끼 먹고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하듯이 참법을 독송하는 시간은 내 삶의 일부가 되

었다. 뜻도 모르고 그냥 읽다가도 한 구절씩 마음에 남게 되면 그날의 생활지침으로 삼기도 했다.

자비도량참법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맑힐 뿐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 같았다. 생활에서 느꼈던 신기한 일도 많다. 언젠가 인도(人道)에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내 옆구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을 뿐이었다. 소매치기를 당했다가 물건을 다시 찾은 일도 있다. 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누군가 받아주기도 했다. 이런 일은 모두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하고 난 후 경험하게 된 일이다. 주변 사람들은 “나가 매일 참법을 읽더니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나 보다.”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도 했다. 나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였다.

참법을 펼쳐 보면 “일체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열심히 따라 읽었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말대로 된다고 하지 않던가? 생각해보면 나는 부처님의 가장 큰 가파를 받은 것 같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그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는데 나는 그 복을 받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자비도량참법이 나에게 준 선물은 바로, “출가”였다.

출가 후에도 집에서 매일하던 자비도량참법 독송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절에 와서 못하게 된 것은 나에게 큰 불만을 생기게 했고, 그걸 아신 은사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다. “혜민스님, 날마다 한 권씩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맘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살필 줄 아는 일상생활 모두가 다 기도예요.”

은사 스님께서는 자비도량참법을 매일 독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것이 참 기도임을 잊지 말라 하셨다.

자비도량참법에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본래 청정함을 잊지 말라는 것. 실천이 기도이고, 나를 비우고 다른 이에게 회향하는 것이 내가 이 길에 들어선 이유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리라.

이린 아이도 말로는 백두산을 오른다 하네

백설 노인도 밖보니 백두산을 오른다 하네

입으로는 누군들 못 오르겠는가?

욕심내던 나의 마음, 화내던 나의 마음, 어리석은 나의 마음들이 마치 먹구름이 햇빛을 가리듯 나의 보배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부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다 보면 자비도량참법을 시작하던 그때의 봄날처럼 내 가슴에도 빛꽃이 한 아름 피어나지 않을까?

## 풍요 속의 빈곤

편집부

지금 지구에는 식량이 넘쳐나서 버리고 썩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기아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끓어서 죽고 있다. 황당한 현실은 기아로 끓어 죽어가는 인구 보다 영양파이프로 죽어가는 인구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풍요와 빚주림이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는가?  
이런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날 지구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몇몇 다국적 금융자본의 힘은 자유무역과 시장 경쟁주의를 등에 업고 있다. 그들의 해외 자본은 물리적인 국경만 남긴 채 생존이 달려있는 실질적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지구의 절반을 기아와 질병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세상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이기심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오직 삶의 편리와 속도, 이윤과 쾌락을 추구하는 등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또한 요즘 현대인들에게 급격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산업발달로 인한 서구화된 식생활과 영양파이프로 비롯된 성인병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암, 당뇨병, 고혈압 등이 모두 영양섭취 과잉으로 인한 질병들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의 몸에 대한 집착과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인과因果라고 볼 수 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가장 큰 괴로움은 육신肉身'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몸보다 괴로운 것은 없느니라. 배고프고 목마른 것과 추위와 더위, 미워하고 화내는 것,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색욕과 원한도 모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체법무아諸法無我!' 이 육신肉身이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며 재난의 뿐리이다. 우리 몸은 地, 水, 火, 風으로 잠시 인연因緣되어 만났다가 다시 자연으로 흩어지는 것일 뿐, 나我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충족된 후에 느끼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다만 순간적 만족일 뿐이다. 이 육신肉身에 집착하여 끝없이 채우려는 인간의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면서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다.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충고가 아닐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성인이 말씀하기를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몸에 생겨나는 병의 의미를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몸이 건강했을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병을 만났을 때 공부를 삼아 내 자신을 더 깊이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동안 얼마나 충실히 내 삶에 임해 왔는가.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현재 불교계에는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 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하며,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한다.'는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슬픔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만족할 줄 모르는 행복을 갈구하는 우리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하며, 이웃과 더불어 자비 나눔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더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니.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솔기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선비한 맑은 가난을  
닌자는 부끄러워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태도가 아니라,  
자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 번역스님 -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라고 한다.

'채움' 만을 위해 달려온 그동안의 생각을 버리고 '비움'으로 다가가는 것,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행복으로 자신을 기득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비움'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발원해 본다. ☺

## | 등 불 |

### 운·문·소·식



▲신중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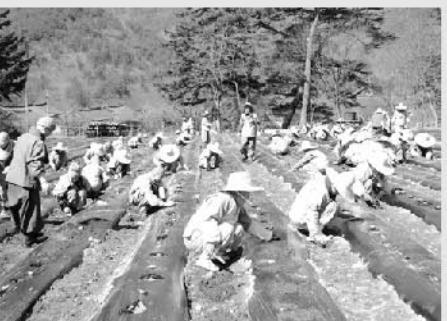
▲치문반 스님들의 사리암 잠배



▲자자(自恣)



▲대교반 스님 자비탁발



▲감자심기 대중울력

- 3월 5일~27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38회 '행자 교육'에 일진 학감스님께서 교수사,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 3월 14일      봄철 개학공사와 신입생 방부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4일~16일      대중 스님의 무강무애를 발원하는 신중기도가 3일간 대웅보전에서 있었고, 회향 일에 화재예방 소규모 묵기를 하였습니다.
- 3월 19일      치문반 스님들의 사리암 참배가 있었고, 제4회 청도 '유동제'에 대교 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3월 25일      요가를 시작으로 염불, 행자, 서예, 사군자, 꽃꽂이, 일어, 영어, 컴퓨터, 피아노 등 외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27일      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30일      연례행사인 대교반 스님들의 탁발이 동곡, 경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총 탁발금은 9,387,880원으로 인근지역 학교의 장학금, 군법당 지원금, 급식비 등의 지원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각지의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4월 3일      감자 심기 대중 울력이 있었습니다.
- 4월 5일~6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30회 '구죽계 수계 산림'에 일진 학감스님께서 교수사, 갈마사,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 4월 9일      학인 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2일~15일      봉녕사에서 열린 제18회 "식차마나니 수계 산림"에 학감스님은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사교반 스님이 "식차마나니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4월 16일      삼월 삼진날을 맞이하여 천연기념물 제180호 처진 소나무에 막걸리 주기 행사가 있었고, 대중스님이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17일      조계사에서 열린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에 어른 스님과 대중 스님이 다녀 왔습니다.
- 4월 19일~21일      호진스님의 '초기 불교 교리 강좌'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4월 23일      봄철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5월 3일      29일간의 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          |          |          |           |
|----------|----------|----------|-----------|
| · 일면스님   | · 행법스님   | · 능현스님   | · 최동언불자님  |
| · 전천호불자님 | · 서철교불자님 | · 이화진불자님 | · 대순애불자님  |
| · 박정숙불자님 | · 이기태불자님 | · 김진호불자님 | · 박영훈불자님  |
| · 이병석불자님 | · 최희영불자님 | · 이무호불자님 | · 활수진불자님  |
| · 김봉관불자님 | · 김태염불자님 | · 이영철불자님 | · 조용범불자님  |
| · 송암사    | · 박영재불자님 | · 동음 성덕사 | · 정수산화불자님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2-8834(FAX 검용)



허만욱(동국대 미술과 교수) / 인도 바라나시

'나날이 더함'을 구하지 말고 '나날이 줄임'을 구하라.

인생에 있어서 한 푼을 줄이면 곧 한 푼을 초탈하나니,

시름을 줄이면 시고고마움을 면하고

돈을 줄이면 돈이 쌓아지고

생각을 줄이면 정신을 소고하지 않고

총명함을 줄이면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있느니라.

저 '나날이 줄이는' 것을 그하지 않고 '나날이 더함'을 그하는 자는

참으로 이 생을 속도하는 것이라.

- 채근담 中에서 -



##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월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370-7139 / 중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봄호·통권 제112호·2010년 4월 26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기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 / 고문·일진·편집·운문승기대학 문화부

편집장·현산 / 편집위원·장주, 선준, 혜오, 현오, 덕언, 능오, 지석, 만경 / 사진·증호 / 삽화·도일, 승이

컴퓨터·지석 / 편집디자인·미디어 (02)2285-3366

